吳知泳의 人物과 著作物

盧 鏞 弼

Ⅰ. 머 리 말
Ⅱ. 吳知泳의 人物
Ⅲ. 吳知泳의 著作物
Ⅳ. 맺는 말

Ⅰ. 머 리 말

東學農民戰爭에 직접 참가하여 활약한 바가 있는 吳知泳이 〈東學史〉를 저술하여, 崔濟愚의 東學 創道 이후 東學農民戰爭의 경과등 東學의 歷史에 관해 많은 사실을 전해주고 있어 東學農民戰爭에 대한 硏究 등에 대부분 크게 참고되어 왔다. 그렇지만 그 史料的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은 著述 및 刊行 배경 등에 대한 究明이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著者인 吳知泳에 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 이를테면 그의 本貫, 家系, 生存年代 등조차 자세히 밝혀진 바가 없는 형편이다.

이에 筆者는 吳知泳의 人物에 대해 추적하는 한편 그의 또 다른 著作物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本稿는 그 결과로 얻어진 사실들을 살펴보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그의 人物에 대해서는, 〈東學史〉에서 자신에 관해 언급한 내용 외에도 그와 교류했던 人士의 文集, 그를 비롯한 관련 人物들의 戶籍, 天道敎聯合會의 文書, 그의 後孫의 證言 등을 토대로 밝혀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의 著作物에는 〈東學史〉의 草稿本과 刊行本 외에도 〈新人乃天〉과 〈새사람과 새한울〉이 더 있음을 찾아낼 수 있었으므로 그의 著作物들이 언제 어떠한 동기로 쓰여져 간행되었던가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本稿가 吳知泳의 人物과 著作物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東學農民戰爭과 初期天道敎會史에 관해 정리하는 데에 자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Ⅱ. 吳知泳의 人物

吳知泳의 家系, 身分 그리고 生歿年代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상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단지 그가 저술한 〈東學史〉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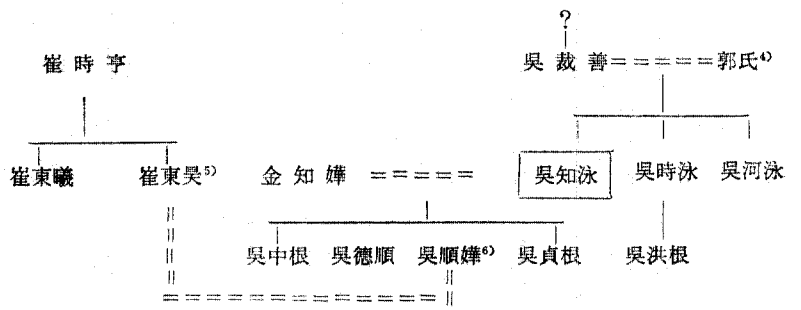
> 先時 壬辰年 八月間의 일이다. 全羅道 茂長縣 禪雲寺 兜率菴 南便 數十步쯤 되는 곳에 五十餘丈이나 되는 層巖絕壁이 있고 그 절벽 바위 전면에는 큰 佛像 하나가 새겨 있었다. …(中略)… 어느날 밤중의 일이다. 웬 사람이 옥중에 들어와 吳知泳을 불러 종용히 말한다. 吳生員님은 저를 몰라 보십니까 하고 묻는다. 吳知泳은 자세히 기억할 수가 없다고 하였더니 그 사람은 말하되 저는 이골 都使令 李中福입니다. 제가 어려서 십세적에 生員님과 같이 한 서당에서 글읽던 사람입니다. 그새 십여년 동안 서로 갈리어 서로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합니다. 저는 生員님이 잡혀 오시던 날에 이미 알았읍니다. 얼굴을 보아 안게 아니라 다른 使令들에게 들어알았읍니다. 宅, 先考令監의 姓名을 말하면서 그의 세째아들이 잡혀왔다고 해서 알았읍니다.[1]

라고 하여 어릴 적에 同門 修學했다고 하는 인물에 의하면 그 자신이 生員으로 불리고, 父가 令監으로 호칭되었으며, 三兄弟 중 막내라는 것외에는 두형의 이름조차 알 수 없다. 그리하여 吳氏의 本貫에는 海州, 同福 등이 있으므로 그 중의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族譜를 모두 뒤져 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그의 딸 吳英華를 만나,[2] 그녀의 증언을 통해 本貫은 海州, 두 兄의 이름은 河泳, 時泳이고 戶籍이 종로구 수송동에 있음을 알아 戶籍을 열람할 수 있었다. 族譜에는 실려있지 않던 그의

1) 吳知泳, 〈東學史〉, 永昌書館, 1940, p. 87.
2) 그녀는 1943년에 결혼한 河領相씨와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소재는 天道敎 中央總部의 常住宣道師 表暎三씨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 여러차례에 걸친 대담을 통해 吳知泳의 생전에 관해 들은 바가 많다.

家系에 관한 사실이 戶籍에는 실려있는 셈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戶籍과 仲兄인 時泳의 子로, 오랫동안 그와 같이 활동했던 洪根의 戶籍[3]을 토대로 그의 家系를 표로 작성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表 1〉 吳知泳의 家系 및 婚姻關係



*범례 (1)==표시는 婚姻관계를 나타냄
(2) 婚姻관계는 주요인물의 경우만 표시함.

3) 吳知泳의 兄인 時泳의 子 洪根은 本籍이 全北 益山郡 益山面 南中里로 등재되어 있는데, 1923년 2월 20일에 益山郡 春浦面 石灘里로부터 이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940년 6월 26일에 滿州로부터 다시 본주소로 돌아왔음이 명시되어 있다.

4) 현재 확인할 수 있는 1975년 再刊된 그의 호적에 따르면 母의 姓이 '敦氏'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보다 이른 1962년에 재간된 그의 제적등본에는 母의 姓이 '郭氏'로 되어있다. 移記상의 오류를 상정한다면 그의 母의 姓은 1962년에 재간된 호적의 '郭氏'가 옳은 것같다.

5) 崔東昊와 吳知泳의 女 順嬅와의 혼인은 이례적으로 〈天道敎月報〉 제33호(1913년 4월호) 中央總部彙報欄에

○嚆爾新婚 道宗神師第二子崔東昊와 監査院長吳知泳氏의 令吳順孃嬅는 本月五日 上午十二時에 聖化室에서 結婚式을 擧行하얏다더라

라 하여서 당시 中央總部에서의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로 보도하고 있다(인용기사 중 '令吳順孃嬅'은 인쇄과정의 착오로 '令孃吳順嬅'가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데 같은 호수의 언문부란에도 천일기념식과 함께 이들의 혼례식에 관한 보도가 보이는데,

結婚式 도종선사 둘재자제 최동호군과 감사원장 오지영씨의 영양 오순화는 이날 성화식에서 결혼식을 거행하얏더라

고 하였음으로 보아 이들의 결혼식은 天道敎中央總部의 천일기념식에 맞추어서 거행될 정도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이례적으로 결혼식에 관해 〈天道敎月報〉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吳知泳이 中央總部에서 차지하고 있던

이 〈表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父의 이름이외에는 더 이상 그의 선조들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런데다가 獄을 지키는 한직의 都使令과 어렸을 적에 같은 書堂에 다녔다는 것은 가문이 그만큼 한미했던 것임을 나타내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혹 그의 家系는, 茂長縣 出身의 몰락한 兩班이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7]

그러면 吳知泳은 언제 태어나 언제 東學에 입교하고 언제 사망하였을까. 생년 월일은 戶籍을 통해서 1868년 8월 13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戶籍에 실려 있는 사망 날자는, 그의 영결식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東亞日報〉와 일치하고 있지 않다. 戶籍에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서 1950년 9월 27일 오후 10시에 사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東亞日報〉 1950년 3월 6일자 기사에는

원암 오지영(源菴 吳知泳)씨는 금번 노환(老患)으로 서거(逝去) 하였는데 영결식은 호남선 함열역전(咸悅驛前) 천도교 연합회에서 거행하리라 한다. 그런데 오씨는 향년(享年) 팔십삼, 씨는 일찌기 갑오동학란(甲午東學亂) 당시 전봉준(全琫

비중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고 하겠는데, 이 혼인에 대해서 吳知泳이 적극 널리 홍보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 점은 물론 당시 吳知泳이 〈天道敎月報〉의 編輯員이기도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吳知泳이 이들의 결혼을 적극 추진하였던 의도는 아마도 崔東昊가 崔時亨의 子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더우기 吳知泳이, 崔東昊의 兄 東曦와는 일본체류시에도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음을 (鄭瑢根의 〈學明德會〉참조) 보아 이런 추측은 타당할 것 같다. 崔時亨의 아들들과 밀접히 교류하고 또 자신의 딸과 결혼시킴으로써 그만큼 吳知泳의 中央總部내에서의 지위는 공고히 다져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6) 吳知泳의 戶籍에는 그의 長女의 이름이 順順으로 되어있지만, 順須라고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한편 崔東昊가 京城지방법원의 심문과정에서는 그를 바로 잡아 吳順曄라고 대답하고 있다. (市川正明編, 〈三·一獨立 運動〉 第4卷 朝鮮獨立運動 別卷, 原書房, 1984, p. 338) 천도교 여자교인들의 경우에는 이름의 끝자를 '燁'자로 쓰는 관례로 미루어서 이 경우의 '曄'는 아마도 市川正明이 원본에서 移記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때문이지 본디 '曄'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7) 그의 身分에 대해 梶村秀樹는 〈東學史〉 解題를 쓰면서 生員으로 불리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兩班 出身일 것이라고 한 바가 있다. (東洋文庫 174, 1970, p. 370 ; 〈朝鮮史の構造と思想〉, 研文出版, 1982, p. 120.)

準)씨와 협력하여 동학군(東學軍)을 지휘하였으며 손병희(孫秉熙)씨와 함께 기미운동(己未運動)에도 직접 참가하였다.[8]

고 있다. 그런데 그의 영결식을 주관한 天道敎聯合會의 문서인 〈還元錄〉[9]의 기록에는

故源菴 吳知泳선생은 布德九年 八月 十三日에 高敞郡 茂長面 德林里에서 出生하시다. 布德三十二年 辛卯 三月 十二日에 入道하야 布德三十五年 甲午에 全琫準先生과 갓치 東學大將을 하섯고 其後 甲辰年에 再擧하여 諸般道中事를 勞力하시다가 布德九十年 三月 一日 上午 二時에 還元하섯읍니다. 享年 八十三歲 되였읍니다.[10]

라고 하여 생년월일은 그의 戶籍과 같이 1868년 8월 13일로 되어 있고 사망년도는 布德九十年, 즉 1949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망 월일 시간까지 3월 1일 상오 2시로 기록되어 있다. 어느 기록보다도 정확한 사망 날자 시간 외에 이 기록은 두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켜 주고 있다. 즉 故鄕이 高敞郡 茂長面 德林里라는 것, 또 布德 三十二年 辛卯 즉 1891년 3월 12일에 東學에 入敎하였다는 것이다. 吳知泳이 東學에 入敎한 1891년의 나이를 환산해보면 23세이다. 그리고 그 이듬해, 즉 1892년에 앞서의 所謂 石佛秘訣事件으로 故鄕을 떠났고 1893년에는 益山民亂에서 都狀頭로서 활약하였던 것 같다.[11]

그 이후 益山에 계속 머물면서 활동하였는데, 특히 1984년부터의 東學

8) 〈東亞日報〉 1950년 3월 6일(월요일)자 2면 제 8 단

9) 天道敎聯合會의 문서들은, 吳知泳에게서 생전에 교리지도를 받은 바가 있는, 서울 거주의 崔玉順氏—여러가지 귀중한 증언을 筆者에게 해준 뒤 얼마 후에 사망하였다.—와 부여 거주의 丁斗燮氏의 도움으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었다. 이 문서들은 咸悅驛前 瓦里에 있던 天道敎聯合會 교당에 보관되어 오던 것인데, 지난 1986년의 대홍수때에 교당이 무너져서 현재는 扶餘郡 世道面의 김영복씨댁에 기거하는 그의 누이 김삼육씨(83세)가 관리하고 있다.

10) 이 문서는 吳知泳과 함께 天道敎聯合會 회원으로서 滿州 이민도 같이 갔다가 1945년 귀국후에도 吳知泳을 도와 天道敎聯合會를 이끌었던 崔圭燮氏(註 9의 崔玉順氏의 父)가 吳知泳의 사망 직후에 작성한 것이라 한다. 丁斗燮의 談 참조.

11) 前揭〈東學史〉, p. 105.

農民戰爭에서 자신이 한 활약에 대해 그가 〈東學史〉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 吳知泳 등은 大都所에 들어가 名刺를 통하였다. 全琫準은 곧 반가이 영접하는지라 吳知泳은 이어 南北接說을 꺼내었다. …(中略)… 이때는 八月 望後라 吳知泳은 金邦瑞, 劉漢弼 두 사람을 데리고 數日만에 報恩 報內里에 도달하여 海月先生을 뵈옵고 南北接에 대한 말씀을 告하였다…(中略)… 吳知泳은 南北接 調和策을 이루고 湖南으로 回程할 때 海月先生이 吳知泳을 불러 付托하여 曰 내 이제 君에게 兩湖都察의 任을 맡기노니 이대로 내려가서 南北道接을 盡心調和하며 大道의 將來를 그릇되지 말게 하라 하셨다. 都察의 職務는 包와 包사이에 關共爭奪하는 일과 道人과 外人 關係에 對한 일과 各執綱所에 關한 일 等이었다. 吳知泳이 報恩으로부터 돌아와 一邊 北接이라고 稱하는 諸包에 通告하여 益山에 會集케 하고 一邊 全大將에게 通知하여 調和한 事由를 알게 하니 於是乎 南北接 싸움은 終熄하였다.[12]

라고 하여 자신이 海月 崔時亨으로부터 南北接 調和의 부탁을 받고 성사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 시기에 이처럼 吳知泳이 대단한 역할을 했던 것일까. 1894년을 전후한 시기 益山地方 東學 조직 내에서의 그의 역할에 관해서는, 天道敎측에서 益山 지방의 敎區史를 編年體로 정리하여 1926년에 발간한 〈天道敎會月報〉 제189호의 '益山宗源沿革'[13]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번잡한 감이 있지만 益山宗源沿革중에서 관계되는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布德三十四年癸巳에 大神師 伸寃할 事로 伏闕을 하자는 衆議가 一致함으로 各

12) 前揭〈東學史〉 pp. 137~139.

13) 이 '益山宗源沿革'은 누가 쓴 것이며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의 전부를 검토해 보면 益山郡 北一面 新里 出身으로 吳知泳과 같이 활동을 계속했으며 天道敎 益山敎區長을 1915년에 역임한 바가 있고, 〈天道敎月報〉에 '益山宗源沿革'이 게재된 1926년 9월 현재 中央宗理院 布德課 委員으로 있던 鄭瑢根이 쓴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編年體로 서술되면서 매년마다 주로 鄭瑢根의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 '益山宗源沿革'의 맨 끝부분을 鄭瑢根의 中央宗理院 布德課 委員 被任으로 맺고 있기 때문이다. 吳知泳과 鄭瑢根은 뒤에서 詳論하는 바와 같이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 그러므로 이 기록은 신빙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處敎人이 一齊蜂起함에 本郡 高濟貞·鄭永朝·姜永達·吳敬道·姜永煥·陳官三·鄭安女·崔蘭善 諸令이 敎員을 多率하고 京會에 參入하야 伏闕한바 倫音이 下曰 各歸其家하야 各安其業하라신 故로 都會所를 報恩帳內로 移하다. 魚允中이 勅敎를 奉하고 來하야 曉喩한 決果 其家에 各還하니 布敎는 漸衰大并하다.

布德三十五年 甲午에 古阜擾戰의 本郡 吳敬道·姜永達 兩氏가 敎人을 多率하고 全琫準·孫化仲·金開男과 合勢하야 官軍으로 擾戰하고 全州를 陷落한바 觀察使 金文鉉 大將 洪在箕(在義의 잘못?)[14]가 和親하기를 請하거늘 因하야써 親和한 후 各郡의 執綱所를 排置하야 事務를 行하다. 是時에 大擾主 金方瑞氏가 大都會所를 設할새 高濟貞·鄭永朝·(鄭)安女·蘇敬天·陳官三·姜永煥·金國彬·吳知泳·黃淑周·鄭德三·李安俊·金國弼·金守敬·林泰圭·金公淑·鄭益仲·金佑凡·崔蘭善·田東八·韓定洙·鄭璐根·金永祿·李有祥·金君性·李德裕·玄致震·鄭君善·鄭良賢·林德三·金公佑·李敬化·韓仁甫·黃致敬·丁女光·羅秉植·李用敎·洪淳璣 等이 中堅이 되여 會所를 裏里·羅浦·大場 村·春浦·舊益山邑 各地에 分置하여 事務를 視하며 大勢를 觀하다가 十月에 京兵으로 又爲開戰함에 公州·論山·參禮에서 交戰할 時에 本郡敎人金成九·鄭判成·昔今同·金潘岩·宋東學·金永光·安圭寅·金正運·宋秉燁諸氏가 慘悔되고 是多에 指目으로 被害한 事는 筆舌로 難記이리라.

布德三十六年乙未에 官軍指目이 大熾하야 傳擾이 無路라 兼又敎路가 杜絕하야 師門의 淵源을 開通치 못함으로 恒是 大慮하던 차에 翌年丙申에 大擾主 張敬化氏를 逢하야 鄭永朝·金國彬·吳知泳·鄭璐根 諸氏가 敎의 淵源을 相通하였다.

布德三十八年丁酉에 上道로 敎人名帖을 發佈함에 大擾主 張敬化氏가 敎帖을 侍來한바 鄭永朝·金國彬·吳知泳·鄭璐根 諸氏가 頭令의 任에 又昇하였다.

布德四十一年庚子에 大擾主 李炳春氏를 逢하야 義庵聖門을 開通하여 敎의 淵源을 復起하니 是時에 朴先明·李有祥·鄭永朝·金國彬·吳知泳·鄭璐根·李奉宗·權義淵·朴永煥·朴貴奉·權奉圭 諸氏가 起立하였다.[15]

이 기록에서 布德 35년 甲午年(1894)이전의 내용에는 吳知泳의 이름이

14) 洪在義(義)는 洪啓薰으로 改名하여, 洪啓薰이란 姓名으로 더욱 잘알려졌다. 朴宗根, 甲午農民戰爭(東學亂)における「全州和約」と「弊政改革案」, 〈歷史評論〉 1962年 6月號 p. 44. 참조.

15) 〈天道敎月報〉 제189호, 1926년 9월호, pp. 31~32.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1894년 東學 농민군이 각 郡에 執綱所를 설치할 때에 益山에는 金方瑞가 大接主로서 大都會所를 설치하였다. 그 소속 이십여명의 중견 중의 한 명으로서 吳知泳의 이름이 보일 뿐이다. 그는 布德 38년 즉 1897년에 가서야 비로소 益山郡 大接主 張敬化 휘하 4명의 두령 중의 하나로 등재되어 있을 따름이다. 물론 吳知泳이 執綱所의 사무를 실제로 담당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겠지만(방점부분) 그가 〈東學史〉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益山지방에서의 총두목이고 南北接 調和에 주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특히 海月 崔時亨을 만나 南北接에 대한 견해를 보고할 때에 金方瑞·劉漢弼 두 사람을 데리고 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大接主인 金方瑞 휘하에서 자신이 이십여명의 중견들 중의 한 명에 불과했다는 사실과는 전연 배치되는 것이다.

東學農民戰爭 이후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東學史〉에는 별로 보이지 않고 다만

> 吳知泳은 兩湖都察의 任으로서 全羅, 忠淸 兩道의 間에서 接과 接사이의 일과 道人과 道人 사이의 일을 摠察하다가 公州싸움에 敗를 當한후 益山 全州 사이의 軍을 다 解散하고 西海邊으로 몸을 피하여 다니다가 마침내 京城으로 올라와 楊州 妙寂菴에 隱居하여 歲月을 보내다가 마침내 敎役者가 되었다.[16]

고 하여 서해변으로 피신다니다가 楊州 妙寂菴에 은거하여 세월을 보낸뒤 교역자가 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시기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天道敎月報의 〈益山宗源沿革〉에도 기록이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하여 이 때 그가 〈東學史〉에 기록한 것처럼 서해변으로 피해다니다가 楊州 妙寂菴에서 은거하여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鄭瑢根의 文集 〈學明德尊〉[17] 卷地에 보면

16) 前揭〈東學史〉, p. 171.

17) 鄭瑢根(1874~1939)은 道號가 槐菴으로 그의 文集이 全 9 卷인 〈學明德尊〉이다. 이 文集은 그의 子婦 朴應順씨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소장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吳知泳과의 대화내용을 비롯해서 天道敎 관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음으로 해서 당시에 활동하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初期 天道敎會史에 관해 살피는 데에 중요한 기록이라 생각된다.

庚子年 事大登 是年 吾教指目大有矣 余則七月分 上京留 連蒙 十月 恩受宮內府 電話課主事 改命璐根 出官報也 其時相從李判書址鎔氏 及白讓官澄洙·申主事錫俊·密密交遊也 又與金主事昌煥·吳主事知泳·高參奉石柱·金主事鳳得·申參奉泰主 連伴從遊 乃相結義兄弟[18]

라고 하여 鄭璐根, 金鳳得등과 의형제를 맺고 교류를 하는 한편 庚子年 즉 1900년 경에는 吳知泳이 서울에서 主事職에 있었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鄭璐根의 〈學明德尊〉의 내용을 실마리로 〈舊韓國官報〉를 조사해 본 결과 吳知泳이 主事職에 임명되었던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즉 光武 5년(1901년)의 〈舊韓國 官報〉를 보면

任咸鏡北道觀察府主事敍判任官七等 吳地泳

以上 五月三十一日(六月三日字)[19]

咸鏡北道觀察府主事 吳地泳의 地字는

以知字로 改正事(六月六日字 正誤欄)[20]

咸鏡北道觀察府主事 吳知泳 依願免本官

以上 六月六日(六月八日字)[21]

라 하여 비록 6일간이긴하나 그가 咸鏡北道觀察府 主事를 역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우기 의형제인 鄭璐根이 判書 李址鎔등과 비밀히 교류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鄭璐根의 주선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고 主事가 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22] 主事職을 잠시 지낸 吳知泳은 다시 益山地方으로 돌아와서 활동하게 된다. 鄭璐根의 〈學明德尊〉에 의하면

八月 余爲泰仁武城書院縉紳有司之望薦 而其時同僚柳生員種奎·柳進士興洙·韓兄錤敎·吳主事知泳諸氏 并往參謁于文昌侯孤雲崔先生及諸賢之位也[23]

18) 前揭〈學明德尊〉 卷地, p. 62.
19) 〈舊韓國官報〉 光武 5년(1901) 10卷, 亞細亞文化社, 1973, p. 426.
20) 前揭書, p. 437.
21) 前揭書, p. 440.
22) 李址鎔과 이들의 관계는 아마도, 李址鎔이 1893년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古阜郡守로 재임했을 때(〈大韓帝國官員履歷書〉, 국사편찬위원회, 1972, p. 764.) 부터 맺어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23) 鄭璐根, 前揭〈學明德尊〉, 卷地 p. 63. 1902년條

라 하여 1902년 8월에 泰仁의 武城書院[24]에 참배하고 거기서 여러 인사들과 교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후에 吳知泳은 天道敎의 敎役者로서의 활동에 주력하는데, 이 시기 그의 행적은 다음과 같은 〈益山宗源沿革〉에서 찾을 수 있다.

布德 四十九年戊辰四月에 聖師主게셔 南道敎況을 視察키 爲하사 本郡臨時 敎區室에 來하사 數萬敎人에게 敎眞理를 說하신후 鄭璡根親家를 訪觀하신 후의 또 敎理를 說하시고 全州로 行駕하시니 其時陪從은 典制觀長 鄭東鎭 玄機觀長 梁漢默 及吳知泳 吉雲海 金相奎 諸氏야러라.

布德 五十年己酉에 本郡 吳知泳氏가 中央總部理文觀書計員이 되엿고 白樂仁을 選하야 總部에 敎理 講習을 修了하게 하엿다…(中略)…

布德 五十二年辛亥에 本郡 吳知泳氏가 典制觀長을 被任한바 京城으로 移住하엿고 鄭濟根을 又選하야 總部敎理講習을 修了하게 하엿다.[25]

이 기록에서 그가 1908년(布德 49년)에 益山敎區長을, 1909년(布德 50년)에는 中央總部 理文觀書計員을 역임하고 1911년(布德 51년)에는 典制觀長에 선임되자 京城으로 移住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렇게 中央總部에서의 敎役者로서 활동하는 한편으로는 學會 활동도 하고 있었다. 鄭璡根의 〈學明德會〉 1910년 8월 18일조를 보면

十八日木陰十四乙卯 日氣如昨 是向 吳政善·李赫兩氏 面謝次禮 渾酣酌 李赫氏 吳知泳兄 湖南學會 從遊云[26]

라 하여 吳知泳이 鄭璡根 등과 합석하여 湖南學會에 대해 언급하였음을 미루어 보아 그가 湖南學會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따라서 吳知泳의 湖南學會 가입 및 활동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

24) 武城書院은 高宗 8년(1871) 書院 撤廢 후에도 남은 47개 賜額書院의 하나였다. 金世澗, 大院君의 書院 撤廢에 관한 一考察, 西江大 大學院, 1980, pp. 47~52. 참조.

25) 前揭〈天道敎月報〉 제189호, 1926년 9월호, pp. 33~35.

26) 前揭〈學明德會〉 卷人, p. 66.

본 결과 隆熙 3년(1909) 1월 25일에 발간된 〈湖南學會月報〉 제 8 호의 '會員氏名 第六'에서 그의 姓名을 발견할 수 있었다.[27] 뿐만아니라 같은 號의 〈湖南學會月報〉에는 '會員氏名 第六'과 같이 '益山 吳知泳' 이라고 하여 祝詞를 게재하는 등[28] 교육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29] 그는 이같이 湖南學會 활동을 하면서 교육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그 관심을 실현시켜 보고자 鄭璿根이 운영하고 있던 昌東學校의 일에도 관계하고 있었다. 즉 昌東學校의 일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08년 9월 21일에는 창간 추진중이던 〈大韓新報〉에 게재할 원고를 작성하여 송부하기도 하고[30] 동년 11월 11일에는

十一日癸巳…(中略)… 下午二点 往栢東學校 吳兄知泳氏 同爲學事勸勵以還[31]

라고 하였음에서 學事 관계의 일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살필 수 있다. 한편 中央總部에서는 주로 〈萬歲報〉에 글을 게재하며[32] 〈天道教月報〉 編輯員으로서[33] 道號인 源菴을 써서 〈天道教月報〉에 많은 글을

27) 〈湖南學會月報〉, 韓國開化期學述誌, 17, 亞細亞文化社, 1978, p. 532. 湖南學會의 전반적인 정리는 李鉉淙, 湖南學會에 대하여, 〈震檀學報〉 33輯 1972. 참조.

28) 전게〈湖南學會月報〉, p. 471.

29) 이런 점에서 보면, 전게 〈湖南學會月報〉, p. 461.에 게재된 鎭安文明學校 '捐助錄'에서 一圓을 내고 있는 吳知永도 아마 吳知泳의 誤記가 아닐까 한다.

30) 전게〈學明德會〉 卷地, p. 91. 그런데, 〈大韓新報〉는 발간이 추진되기는 했지만('新韓創刊計劃說明書' 참조), 〈大韓新報〉라는 題名으로는 실제로는 발간못하였고 그대신 大韓協會의 機關紙로서 1909년 6월에 가서야 〈大韓民報〉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다고 한다. (鄭昌烈, 〈大韓民報〉 해제, 亞細亞文化社, 전게서 p. 1) 大韓協會機關紙로 창간이 추진되던 〈大韓新報〉에 吳知泳이 원고를 게재하고자 송부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 시기에 이미 大韓協會에 가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다. 大韓協會에 대해서는 李鉉淙, 大韓協會에 대하여, 〈亞細亞研究〉 8-3, 1970. 및 金淇周, 大韓學會에 대하여,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三英社, 1985 참조.

31) 전게〈學明德會〉 卷地, p. 107.

32) 道號를 받기 이전에는 〈萬歲報〉 제23호(1906년 7월 22일자) 文苑欄에 '栢下生'이란 號를 성명과 함께 써서 絕句를 게재하는 등의 활동이 찾아진다. 이후 '栢下生'이란 號만으로 글을 게재하는 이는 당시 吳知泳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다.

33) 市川正明編, 前揭〈三・一獨立運動〉, p. 333.

기고하는 등의[34] 활동을 하고 있었다.

서울로 이주한 1910년 이후 그의 居住地는 戶籍에 소상하게 보이므로 호적의 기재 내용을 토대로 하고 후손과 天道教聯合會 회원들의 증언을

〈表 2〉 吳知泳의 居住地 變動 상황[35]

시 기	居 住 地
1892년	全南 高敞郡 茂長面 德林里
1894년	全北 益山郡 咸悅邑
1911년 12월 4일	(分家 上京)京城府 壽松洞 43番地 戶主
1912년 3월 18일	京城府 陽德坊 林洞 17統 某戶
1913년 3월 20일	〃 北部 觀光坊 大安洞 40統 1戶
1913년 5월 8일	〃 北部 安國洞 38統 4戶
1914년 2월 21일	〃 觀光坊 昭格洞 52統 3戶
1916년 10월 10일	〃 〃 〃 75番地
1916년 11월 13일	〃 〃 〃 146番地
1918년 6월 1일	〃 〃 慶雲洞 88番地
1920년 2월 27일	京城 貞洞 居住
1926년 5월 5일	滿州 吉林省 木棋河 三大甸子
1940년 11월 15일	京城府 八判洞 131番地
1943년	京城 新設洞 居住
1949년 12월	京城 龍頭洞 居住
1949년 12월	全北 益山郡 咸悅 移住

34) 吳知泳이 道號 源菴을 받은 것은 1907년 1월 30일으로(李敎化, 〈天道敎創建史〉, 開闢社, 1933, p. 59) 〈天道敎月報〉에는 道號만으로 글을 게재하는 경우가 종종 찾아진다.

35) 이 〈表 2〉에서 보여주는 빈번한 이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빈번한 이주는 그 자신의 경제적 배경이 거의 없었던 점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그 자신의 경제적 배경이 없었다는 것은 그 후손들도 증언하고 있는 바이므로 틀림이

첨가하여 居住地 변동을 表로 작성해 보면 〈表 2〉와 같다.

그 이후 계속해서 中央總部에서 활약하던 吳知泳은 1920년에 天道敎聯合會 창설을 주도하게 된다. 天道敎聯合會에 대해서 그는 〈東學史〉에서

> 天道敎 革新派니 本派는 天道敎 由來의 모든 弊害(淵源界 黨派別과 儀式的 迷惑煩와 組織體 不平等)를 革新하기를 主張하는 者니 즉 天道敎會聯合會가 이것이오.[36]

라 하여 天道敎聯合會의 성격을 天道敎의 모든 폐단을 革新하는 데에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 舊派로 돌아가고 다만 남아 있는 者라고는 李鍾勳, 洪秉箕, 鄭桂元, 吳知泳 등 4인 뿐이었다 …(中略)… 이같은 신중한 부탁이 있음도 불구하고 李鍾勳, 洪秉箕 鄭桂元 등은 마침내 舊派窟에 빠졌다는 소문이 있었다. …(中略)… 어서 바삐 돌아가 復舊派의 奴隸질이나 많이 하여라.[37]

고 함으로써 天道敎聯合會 결성 후 다른 이들은 舊派의 회유에 전부 넘어갔어도 자신만은 여전히 소신을 굽히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이같이 天道敎聯合會를 결성하여 반대파인 舊派세력에게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던 그가 표방하는 바의 대강을 장황하지만 〈東學史〉에서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復舊派의 計策에, 手段에, 物質에, 勢力에, 가지各色으로 不及되어 失敗를 당한 革新黨側은 孤軍弱卒에 小數일지라도 오직 主義 하나만을 世上에 끼쳐보고 말겠다는 決心으로써 幾個의 同志를 모아 緊急會議를 열고 앞으로 實行할 條件을 各地에 公布하니 그 條文은 이와 같다.

없을 것이다. 吳知泳의 사위 河相韻氏와의 對談과 그의 맏며느리 金桂月氏(서울 거주)와의 대담을 통해 이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吳知泳은 계속 셋방을 전전했다고 한다. 한편, 吳知泳의 명의로 된 天道敎 中央總部 소유의 土地가 약간 있었다고 하나 이것도 吳知泳 개인소유가 아니라 中央總部에서 재산관리의 편의상 그렇게 했던 것이라 한다. 表暎三의 談.

36) 前揭〈東學史〉, p. 237.

37) 前揭〈東學史〉, pp. 233~234.

議 決 案

一. 教의 入教文 及 祝文 등은 廢止할 事

…(中略)…

一. 誠米는 從來의 半分은 地方에, 半分은 中央에서 하던 것을 고쳐 此를 三分으로 하여 二分은 地方教會에, 一分은 聯合會로 할 事.

一. 教會는 各地方 面里에 便宜를 따라 設立하고 聯合會는 中央地帶에 두어 氣脈을 相通할 事.

一. 個人을 本位로 地方教會를 中心으로 할 事.

一. 幹部는 庶務, 經理, 宣傳 三部로 하되 平等으로 할 事.

一. 公約章을 刊行하여 革新黨의 明分을 明瞭케 할 事.

公 約 章

一. 迷信的 宗教式은 打破하고 人本道德을 創明할 일.

一. 偏黨的 淵源制는 打破하고 大衆解放에 努力할 일.

一. 階級的 差別制는 打破하고 平等生活을 令圖할 일.[38]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吳知泳이 주장하는 바는 地方分權的인 教會를 이루어서 平等生活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吳知泳이 이와 같이 天道教聯合會를 결성하여 地方分權을 표방하고[39] 平等生活을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앞에서 인용한 바대로 復舊派들의 物質과 勢力에 미치지 못하여 革新黨側이 실패를 당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데에서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中央總部에서 경제적인 면으로나 세력적인 면으로나 舊派에게 열세를 면치 못하자 革新을 표방하면서 天道教聯合會를 창설하였던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革新을 부르짖으며 革新派 동지들을 규합하여 이끌어 갔으나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못하게 되자 滿州로의 집단이민에 앞장섰던 것같다. 1926년의 天道教聯合會의 활동에 대해서 보도한 〈東亞日報〉 9월 9일자 기사 내용에서

얼마전에 전라북도 익산군 천도교도 이백여명이 중국 길림성으로 이주한 일이 있었는데 …(中略)… 직접 관계되는 시내 와룡동(臥龍洞) 일백 삼십일번디 텬도교련합회(天道教聯合會)에서는 그 즉시 그런 사실의 유무를 명백히 조사할 차로

38) 前揭〈東學史〉, pp. 234~236.

39) 朝鮮總督府, 〈朝鮮の類似宗教〉, 1935, p. 62.

특파원을 길림으로 보내며 일변 간부측에서 방금 길림에 재주하는 오지영(吳知泳)씨에게 서면으로 사실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갓더라.[40]

고 하여 吳知泳이 益山 天道敎徒들과 함께 滿州 吉林에 주재하고 있고 또한 당시 경성에 있던 天道敎聯合會에서 그를 통해 그 곳의 당시 상황을 보고 받고 있는 데에서 그가 만주 집단이민의 대표라고 해아려지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그가 만주로 집단 이주를 하면서 天道敎聯合會의 모든 조직이 함께 이동해 갔던 것은 아니었다. 1932년에 朝鮮總督府 警務局에서 조사한 天道敎 敎域에 따르면

天道敎聯合會 敎域
本部(本所 京城府 仁寺洞 二五八)
院長 柳公三
地方支部
京畿道 京城 加坪
…(中略)…
滿州 吉林
(以上 昭和七年警務局調)[41]

라 하여 경성 인사동에 있는 중앙 본부의 원장은 天道敎 혁신 운동을 같이 했던 柳公三[42]이 맡고 있고 滿州 길림에는 지방지부가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東亞日報〉의 1926년 9월 9일자 기사 내용에는 대단히 이채롭게도 만주 집단 移住民의 현황은 물론 그 移住民들이 형성하고 있던 7개 집단 농장의 代表들이 連署 捺印한 聲明書가 게재되어 있음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그가 天道敎聯合會 敎徒들을 이끌고 滿州로 집단 이주하여

40) 〈東亞日報〉 1926년 9월 9일자 5면 제 1 단.
41) 朝鮮總督府, 〈朝鮮の類似宗敎〉, 1935, pp. 67~68.
42) 柳公三(1896~1938)은 戶籍에는 柳公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全南 高興郡 豆原面 新松里가 고향인데, 天道敎聯合會 서울본부원장을 지냈을 뿐만아니라 1926년에는 天道敎 혁신파의 대표로서 高麗革命黨 조직에 金鳳國 등과 가담하였다가 刑을 살기도 하였다. 〈東亞日報〉 1927년 1월 28일자 2면, 國史編纂委員會, 〈騎驢隨筆〉, 1972, p. 369. 및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권〉 4권, 1987, p. 542. 그의 子 柳在炯은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筆者가 찾아 對談해 보았지만 父親에 관한 자료는 전혀 보관하고 있지 못하였다.

벌였던 활동의 실상을 살피기 위해 번잡하지만 東亞日報 기사의 주요 내용만을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移住民의 現況

일곱군데에서 안명한 생활을 하여

…(中略)… 그들은 방금 일곱명대표자들의 지도로 비옥한 새땅을 개간하는 중 더욱 금년에는 농형(農形)이 레년보다 매우 풍작이 되여 부락(部落)에 수십명가구가 한 가명모양으로 안명한 생활을 하여간다는데 그들의 농작 상황은 다음과 갓다더라.

農作分布狀況

△木棋下二大甸子에 男女老少五十二人, 火田三十二向, 畓五向 代表者 金正洪

△同十一號에 三十六人 火田四向 畓二十一 代表者 吳洪根

…(中略)…

□備考 農作男女老幼의 差와 全家族과 壯丁 單身의 雜居形便임으로 農作斗落數가 均一치 못하고 …(中略)…

七農庄代表의 連署捺印한 聲明書

…(中略)…

一. 本人등은 天道敎會新派敎人으로서 본래 無產農民인 同時에 耕作地가 全無함으로 不得已 多情한 故國을 등지고 쓸쓸한 北滿으로 移住하게 된 動機는 本聯合會의 周旋으로 …(下略)…[43]

이 기록에 따르면 耕作地가 全無한 天道敎會의 新派敎人들이 天道敎聯合會의 주선으로 滿州에 移住하였는데, 그들은 7개 장소에 내뉘어져서 吳知泳의 조카 吳洪根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集團 農場을 형성하고 농토를 개간하면서 均一한 농토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같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農作 男女老幼의 차이와 全家族 雜居 등으로 말미암아 농작 斗落數가 均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소위 移住費 橫領 事件이 발생함으로써[44] 집단 이주의 원래 목표인 均等한 土

43) 〈東亞日報〉 1926년 9월 9일자 5면.

44) 이주비 횡령 사건은 益山에서 滿州로 이주할 때에 거둔 여비등을 지도자들이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폭로 기사와 진상 조사 속보 그리고 天道敎聯合會측의 해명 등이 東亞日報에 소상히 보이고 있다.

한편, 天道敎內의 農民運動 전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盧榮澤, 日帝下 天道敎의 農民運動硏究 (1), 〈韓國史硏究〉 52, 1986. 참조.

地分配와 共同耕作은 달성되지 못하고 내분이 일어나 吳知泳은 곤경에 처하게 된다. 그러던 吳知泳이 서울에 돌아온 것은 1935년이었다.[45] 그 후 그는 1936년에 〈新人乃天〉, 〈새사람과 새한울〉, 1940년에는 〈東學史〉를 간행하였다.[46]

그 후 1948년경에 허리 부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47] 그래서 1949년 5월 3일에 益山 咸悅에서 개최된 天道敎聯合會 임시총회에도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임시총회에서 그는 敎化部 상무간사로 추대되었지만 연합회의 사무소를 서울이 아닌 益山郡 咸悅面 瓦里 교회에 두기로 격론끝에 결정함으로써 서울에 있던 그는 결국 주도권을 庶務部 상무간사이자 임시총회 의장인 金廷柱에게 넘겨주어야 했다.[48] 그런데다가 1949년 가을 용두동 전세집에서의 강습회를 일주일의 예정보다 단축해서 이틀만에 끝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 건강면에서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그해 12월 天道敎聯合會의 주선으로 益山 咸悅로 이주 하였다.[49] 그곳에서 심해진 허리병으로 고생하던 吳知泳은 1950년 1월 9일에도 매우 위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天道敎聯合會의 문서 속에서 1950년 1월 9일자로 명기된 遺書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다.[50] 이 遺書는 天道敎聯合會의 교리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준 것으로

45) 鄭璐根의 〈學明德尊〉 卷元, p. 231, 1935년 11월 10일에 '源菴 吳知泳兄(이하 細註 : 筆者) 十餘年 滿州에 在하다가 月末에 來云 相逢叙情하다'라고 하였음으로 보아, 吳知泳은 바로 이 때에 滿州에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46) 그의 著作物들의 저술 배경등에 대해서는 뒤에서 詳論하게 될 것이다

47) 吳英華와 河相領의 談.

48) 이 내용들은 앞의 註 9)의 丁斗燮씨가 소장하고 있는 〈天道敎會聯合會臨時總會 會錄〉에 따르면 咸悅 교당에서 1949년 5월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열린 임시총회에서 격론끝에 표결에 의해 15대 3으로 가결된 결정사항이었다.

49) 강습회에 직접 참석한 바있는 앞의 丁斗燮씨의 談.

50) 이 문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 天道敎聯合會의 문서들 속에 全 5張으로 들어있다.

天道教聯合會 宣布文

우리는 天道教의 불합리한 舊式과 舊制를 打罷하고 오직 革新 公約章을 爲主로 이를 聲明함.

…(中略)…

이러한 심법에 의하여 과거의 모든 불공평하고 불합이한 것을 고쳐 오즉 인내천의 새 진리를 세워 사해붕우가 모다 일신으로 화하여 한번 다시 조흔 세상을 만들어 살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선각자로 자처하는 우리로서 만일 일시라도 이저서는 안 될 것이다.

포덕 구십일년 일월 구일

원암선생유서

라고 하여 과거의 모든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을 개혁하여 人乃天의 새 진리를 세워 좋은 세상을 만들어 살기를 염원하면서 끝내 선각자로서 이런 일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후손들이 일시라도 잊지 말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심해진 병환과 83세의 고령을 이겨내지 못한 吳知泳은 그의 조카이자 연합회 동료였던 吳洪根과 滿州이주 무렵부터의 동지였던 崔圭燮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1950년 3월 1일 오전 2시에 영면하였다. 그리하여 咸悅 역전에서 3월 6일 天道教聯合會 주관으로 영결식이 거행되고 연합회 회원들이 추렴하여 어렵게 마련한 유택에 안장되었던 것이다.[51] 지금까지 살펴본 吳知泳의 행적 중에서 주요한 것들을 表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表 3〉과 같다.

Ⅲ. 吳知泳의 著作物

吳知泳이 남긴 著作物에는 〈東學史〉 이외에도 筆者가 조사한 바로는 〈新人乃天〉과 〈새사람과 새한울〉이란 두 권의 책이 더 있다. 그러므로 吳知泳의 〈東學史〉에 대한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는 이 著作物들에 대한 검토도 요긴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吳知泳의 草稿本이라고 학계에 보고된 바있

51) 崔玉順談. 이 묘지는, 그의 女 吳英華에 의해 파묘되었고, 유해는 화장되었다고 한다. 吳英華談

〈表 3〉 吳知泳의 행적

년 도	행 적
1892	全南 茂長 石佛秘訣事件 연루, 사형선고 받음, 탈출
1894	益山 민란 사건 발생 활약
1894	東學군에 '중진'으로 가담
1894~1907	함경북도 관찰부 主事職 역임, 주로 서울에서 활동
1907	天道敎 익산 교구장
1908	天道敎 의사원 의장 선임
1908	湖南學會 가입, 學會 활동
1909	중앙총부 이문관서계원 취임
1911	〃 전제관장 취임, 京城으로 이주, 분가
1914	공동수심법 참석
1920	天道敎會 聯合會 창립주도
1921	중앙총부 규칙제도 위원 선임
1922	종법사(남만주 담당) 선임, 회맹식 참석
1222	의사원 후원회 조직, 회장피선
1922	출교 당함(5월 12일字)
1922	출교조치 철회됨(6월 13일字)
1923	공약장 서명, 발표
1925	天道敎會 聯合會 회원들과 만주이주 집단촌형성
1935	경성으로 돌아옴
1936	〈新人乃天〉 및 〈새사람과 새한울〉 간행
1940	〈東學史〉 간행

는[52] 國史編纂委員會 소장의 〈東學史〉 전 4 권[53]에 대해서도 그 草稿本의 眞僞 여부와 內容 검토는 물론 刊行本 〈東學史〉와의 비교를 통해서 차이점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그리하여 吳知泳의 著作物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1) 〈東學史〉에 관한 二·三의 문제

(가) 草稿本 〈東學史〉에 대한 재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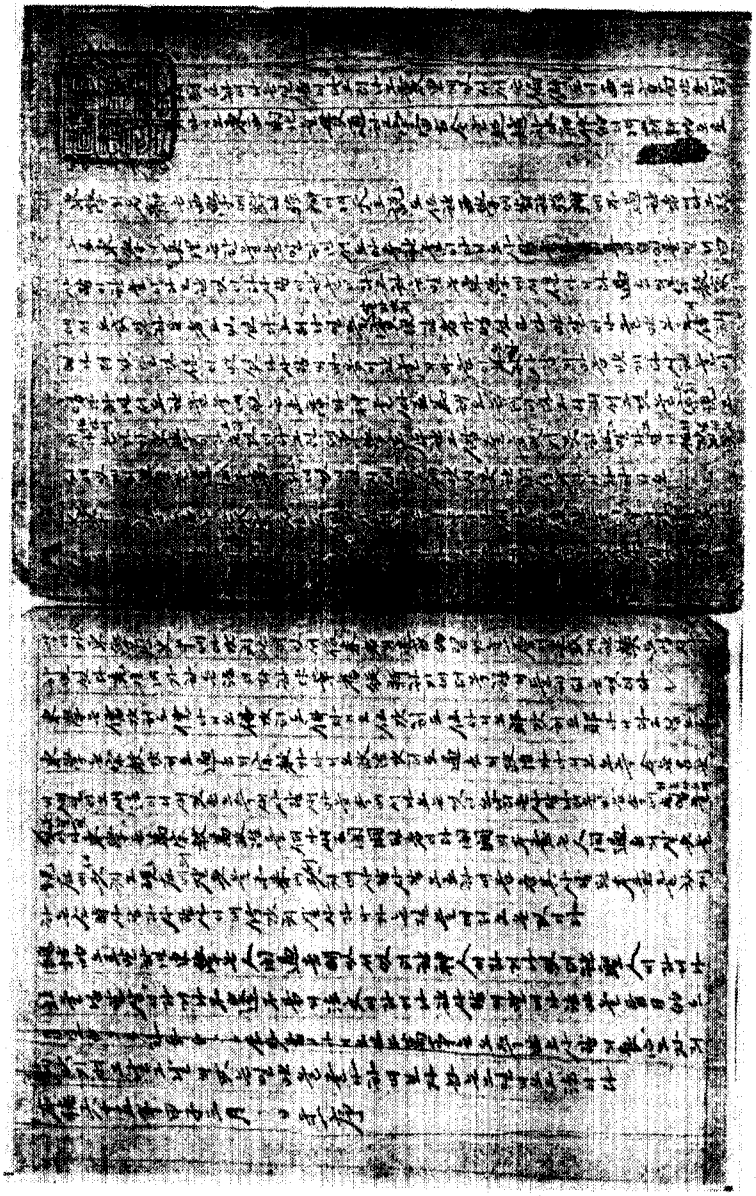
학계에 보고된 草稿本 〈東學史〉는 全 4 冊이다. 第 1 冊은 〈附天道敎沿革大觀〉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는데, 이면에 〈哈彌賓馬車協會〉의 선전 內容이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54] 만주의 하얼빈 지역에서 이면지를 이용하여 정리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그 글씨체도 吳知泳의 親筆이라고 믿어지는 第 2, 3 冊의 글씨와는 다르게 보여진다. 그러므로 第 1 冊은 吳知泳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滿州 吉林으로 이주가 있었던 1926 년 이후 그 지역에서 정리된 것을 〈草稿本〉 第 1 冊으로 편성하였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草稿本 第 2 冊의 머리에는 뒤의 〈자료 1〉에서와 같이 〈東學史序〉가 실려있고 끝에 '布德 65 年 甲子 3 月 日 于一序'라고 하였음이 주목된다. 따라서 이 序文은 '于一'에 의해 1924 년에 쓰여진 것이므로, '于一'이 吳知泳의 號라면 이 序文을 吳知泳이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을테지만 吳知泳의 號는 源菴이므로 이 序文은 吳知泳이 쓴 것이 아닐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추정은 또 다른 著書 〈新人乃天〉의 序文도 '于一'이 쓴 것으로 보아

52) 愼鏞廈, '갑오농민전쟁과 두레와 執綱所의 폐정개혁', 한국사회사연구회편, 〈한국사회의 신분계급과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7, pp. 96~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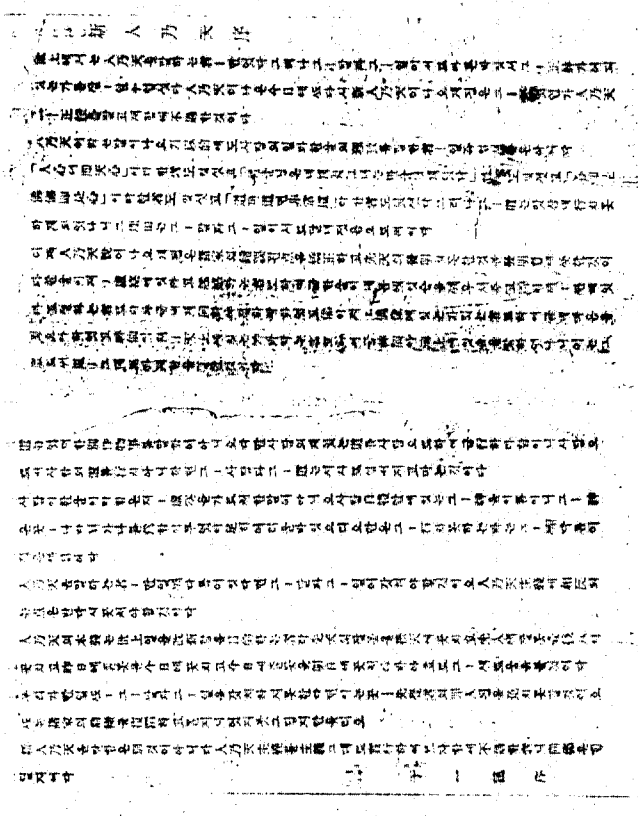
53) 國史編纂委員會 소장번호 C17-4-v. 1~v. 4.

54) 이면지에 적혀 있는 內容은 다음과 같다.

本組合應辨之事項
…(中略)…
本組合應設之事務
…(中略)…
哈彌賓馬車組合啓
總賬房道裡 中央大街九十八號
電話三七零五



〈자료 1〉 草稿本 〈東學史〉의 序文



新人乃天 (原著者 李敦化)

第一章 人乃天의 正義

〈자료 2〉 〈新人乃天〉의 序文과 本文의 첫머리

서 그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 〈자료 2〉에 제시한 〈新人乃天〉의 序文과 本文의 첫머리를 보면 序文 끝에 '于一謹序'라고 하였고 본문의 첫 머리에는 '新人乃天(源菴先生著述)'이라고 하여서 상식적으로 자신의 저서를 낼 때 序文에 '謹序'라고 할리는 만무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源菴이 內容을 쓴 것에 '于一'이란 이가 '謹序'한 것으로 헤아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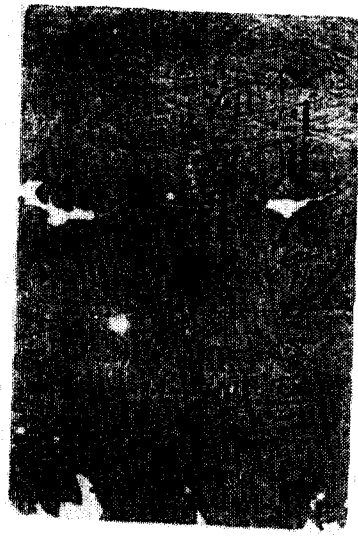
그러면 이렇듯이 '于一'이란 號를 사용하여 草稿本〈東學史〉와 함께 〈新人乃天〉에 序文을 쓰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 그는 天道敎聯合會 本部院長으로 있었던 柳公三이 아닐까 싶다. 柳公三이 1936년에 〈新人乃天〉을 天道敎聯合會의 이름으로 내면서 주관하였기에[55] 자신이 '謹序'를 쓰고 本文의 첫머리에 원저자가 源菴先生 즉 吳知泳임을 명기해 놓았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56] 한편 第2冊과 第3冊의 筆體는 동일하므로 그것이 혹시 吳知泳의 친필이 아닐까 하여 현존해 있는 그의 親筆을 조사해 보았다. 그의 親筆인 다음의 〈자료〉 3, 4, 5와[57] 草稿本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필체임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草稿本〈東學史〉 중 第2, 3冊은, 第1, 4冊과는 달리 그의 親筆本임에 틀림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草稿本 東學史는 漢紙위에 연필로 원고지처럼 칸을 그려 그 內容을 써 내려 갔는데 연필, 펜, 붓으로 여러차례에 걸쳐서 교정하고 있으며 때로는 漢紙를 덧붙여 수정하는 등 오랫동안 고심한 흔적을 역력히 볼 수 있다. 한편 第2冊 겉장에 찍혀있는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의 도장

55) 이 점에 대해서는 곧 詳論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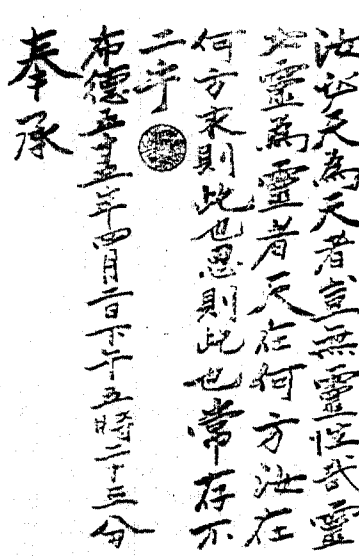
56) 愼鏞廈, 前揭論文, pp. 96~97. 에서는 이 序文을 吳知泳이 쓴 것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보고 있다. 더욱 이런 견해에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草稿本의 序文이 吳知泳이 쓴 것이라면 그것은 刊行本에서처럼 '自序'라고 하였을텐데 그렇게 되어있지 않은 점, 설령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 內容에 있어서라도 어떤 유사점이라도 있을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 등에도 있다.

57) 자료 3)은 吳知泳이 1945년에 그의 女 吳英華가 그의 외손녀를 출산했을 때 격려차 보낸 우편엽서이고, 4)는 〈天道敎月報〉 제34호, 1913년 5월호, p. 14. 에 게재하였던 것이며, 5)는 義菴 孫秉熙가 心法을 일반교도들에게 공동 傳受할 때의 法文을 吳知泳이 쓴 것으로 李敎化의 著書인 〈天道敎創建史〉의 간지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자료 3〉

〈자료 4〉



〈자료 5〉

〈吳知泳의 親筆 자료〉

의 內容에 구입번호가 1175호, 구입날짜가 1938년 9월 9일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朝鮮史編修會에 의해 구입되기[58]까지 吳知泳이 가지고 다니면서 교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第1册의 이면지가 滿州 하얼빈의 馬車協會의 창립 선전지이고, 그 내용상 1926년 吉林에 가있던 吳知泳이 天道敎聯合會 회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작성했던 것이 아닐까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 草稿本은 〈東學史〉를 刊行할 때 그 근간이 刊行本에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실은 草稿本〈東學史〉와 刊行本〈東學史〉를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나) **草稿本〈東學史〉와 刊行本〈東學史〉의 비교**

草稿本과 刊行本의 項目名을 먼저 비교해 보면 다음의 〈表 4〉와 같다. 이 項目名만을 비교해보더라도 草稿本과 刊行本에서 서로 다른 것이 50여 개나 될 정도이므로 그 內容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內容을 비교해서 상이한 부분은 주로 어떤 것들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편의상 세 경우로 나누어서, 첫째 項目名은 동일하지만 서로의 內容에 차이가 있는 경우([1]), 둘째는 項目名이 유사하고 동일한 內容이지만 草稿本의 內容이 자세한 경우([2]), 셋째는 項目名이 유사하지만 서로의 內容에 차이가 있는 경우([3])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경우의 대표적인 例는 다음의 〈자료 6〉에서와 같이 '道問答'이란 項目名은 동일하지만 서로의 內容에 있어서 [A]의 (1)~(5)까지는 [B]의 (1)'~(5)'와 거의 같고 그 나머지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A]의 (나)는 그 앞의 (3)에 합쳐져서 [B]의 (3)'와 같이 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러므로 刊行本은 草稿本을 토대로 하여 동일 項目名이라 하더라도 대폭적인 수정과 가필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의 〈자료 7〉에서 보이듯이 項目名은 유사하지만 草

58) 愼鏞廈, 前揭論文, pp. 96~97.

〈表 4〉 「東學史」의 「刊行本」과 國編委所藏 「草稿本」의 항목비교표

「刊行本」의 항목명	國編委所藏 「草稿本」의 항목명	비교
	(東學史一)	
	附 天道敎 沿革大槪	×
自 序		×
黃義敦序		×
(第1章)	(東學史二)	
	于一序	×
道의 始創	開闢主唱者 첫 出世	△
道의 問答	道 問 答	△
儒佛仙 三道와 吾道	儒佛仙과 吾道	△
布德과 遭難	布德과 遭難	○
新羅時代의 豫言		×
先生父親의 來歷		×
先生母親의 來歷		×
先生의 異常한 天姿		×
先生의 特異한 志操		×
先生과 異人		×
先生의 道力에 死者가 復活		×
道의 制道		×
馬足이 不動		×
深水에 馬脛이 不沒		×
龍潭亭 樹上에 仙女가 下降		×
南原 隱寂庵에 避禍		×
道覺 試驗		×
默念 治病		×

頭上에 瑞氣		×
大邱獄에서 나온 烟竹		×
呪文과 詩, 箴, 筆		×
(第2章)		
	海月先生	×
道의 繼承		×
辛未 事變		×
太白山 工夫		×
開接과 遺蹟		×
降書와 說敎		×
伸寃 運動		×
上疏一束		×
報恩會集		×
石佛秘訣		×
李朝 末葉의 變態	李朝 朝鮮의 末葉	△
宗親과 戚黨의 勢力싸움	宗親과 戚黨의 勢力싸움과 外淑窺簾	△
科宦의 扶雜과 貪官汚吏의 行惡	宮中府中의 荒淫無度	△
	儒林과 兩班의行惡	△
	老少論의 偏色싸움	×
	官職賣買의 弊害와 官隷輩의 作亂	×
	開化派와 守舊黨	×
	甲申政變	×
	(東學史二)	
	東學黨의 큰 指目	×
	全州會集	×

	報恩會集과 京城會集	×
全羅各郡의 民亂	全羅各郡의 民亂	○
東學亂과 古阜陷落	東學亂과 古阜陷落	○
倡 義 文	倡 義 文	○
檄 文	檄 文	○
東學軍과 完兵接戰		×
東學軍과 京兵接戰	京兵과 義軍接戰	△
長城接戰과 全州陷落	義軍이 全州城을 陷落	△
	義軍이 全羅各郡에 執綱所를 設立	×
	執綱所의 行政	×
東學軍과 京兵講和		×
京兵과 日·淸兵이 東學黨討伐	政府에서 淸日兩國에 請兵	△
東學軍의 再度擧事	再度擧義	△
南北接爭端	南北調和	△
儒道首領 李裕尙이 東學에 投合	儒道首領이 義軍에 投合	△
討伐大將 金允植이 東學軍에 投合	討伐大將 金允植이 義軍에 投合	△
淸國 敗殘兵이 東學軍에 投合	淸國 敗殘兵이 義軍에 投合	△
康津 長興의 急報	康津 長興의 急報	○
公州 接戰	義軍과 官兵接戰	△
戰敗 後聞		×
	(東學史三)	
東學軍 大將 全琫準이 京城에 押送	義軍首領全琫準等 京城에 잡혀가	△
全琫準先生 十三歲時에 지은 白鷗詩		×
童 謠	童 謠	○
入死出生者	入死出生	△

東學黨 殘滅하던 者		×
金允植과 李裕尙의 末路	李裕尙과 金允植의 末路	△
東學黨 首領 脫網者	官吏의 羅網에서 뻐어난 頭領들	△
投合된 淸兵의 下落	投合된 淸兵의 下落	○
丞政院日記		×
海月先生 遭變	海月 先生被捉	△
	海月 先生時代의 談叢	×
	海月先生遭變後 道人의 動靜	×
(第三章)		
義菴先生과 民會運動		×
天道敎 出生	一進會와 天道敎發生	△
一進會와 天道敎 分立	一進會와 天道敎 分立	○
(第四章)		
敎會分立後 敎會狀態		×
誠米法 實現	天道敎와 誠米法	△
龜義松 三菴의 顚末		×
龜菴 金演局이 天道敎 大道主就任	苟合되었던 金演局一派가 또다시 分裂	△
春菴 朴寅浩가 天道敎 大道主就任		×
共同傳受心法		×
	朝鮮滅亡과 獨立運動	△
天道敎와 己未事件	三十三人의 氏名은 이와같다	△
	獨立宣言書는 本件에 있어 姑未揭載	△
(第五章)		
天道敎 革新運動	天道敎 革新運動	○
天道敎 議事員 初創說	前日議事院 朔立되는 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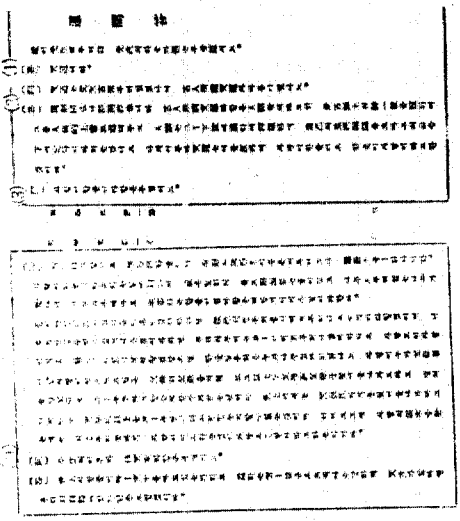
革新과 復舊運動發生	革新하는 한 便에 復舊運動者發生	△
議事員 後援會組織	議事員 後援會組織	○
義菴先生 死亡時 喪章의 是非	義菴先生 殊亡時 喪章의 是非	○
天道敎 革新과 新聞紙	天道敎 革新과 新聞紙	○
合同說이 又復流行	欺瞞的 合同說이 又復流行	△
公約章	公約章	○
附 東學 合派 一瞥		×
	天道敎 革新派의 天道敎理解釋	×
	以上 ○○○○史 ○○	×

*범례 ; ○ : 동일한 경우, △ : 유사한 경우, × : 상이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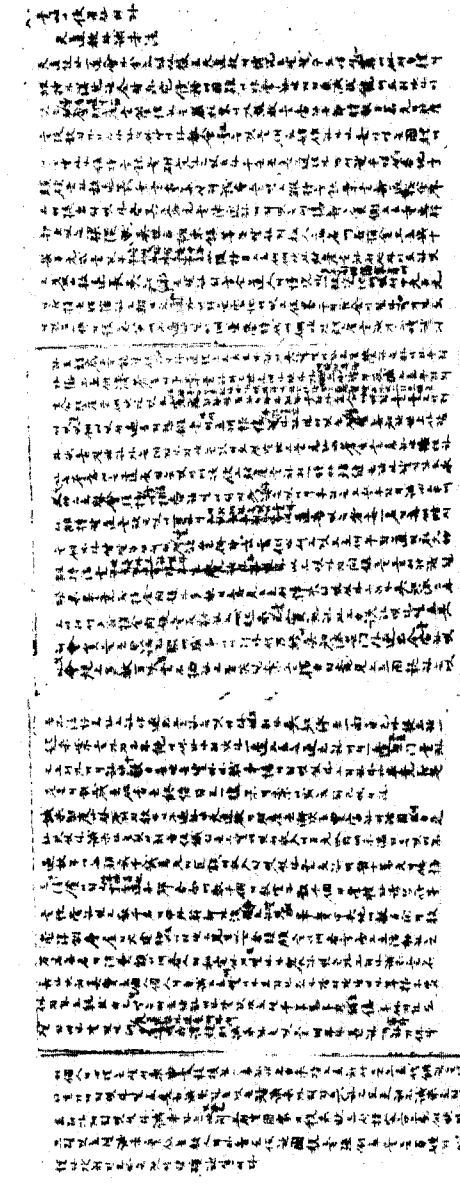
稿本의 內容이 刊行本에 부분적으로 더 자세히 첨가되어 있는 것이다. 草稿本에서는 項目名을 '天道敎와 誠米法'이라 하였던 것을 刊行本에서는 誠米法 실현'이라고 하였고 내용에 있어서도 草稿本의 內容 중 (가)부분만 거의 그대로 실고 (나)부분은 삭제한 것이다. 이러한 刊行本에서의 內容은 주로 吳知泳 자신의 활동을 부각시켜 天道敎 내의 재정 확보책으로 실시된 誠米法이 자신의 노력으로 성립되었음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에 비해 刊行하면서 草稿本에서 뺀 [A]의 (나)는 자신의 노력으로 성립된 誠米法이 본래의 의도와는 빗나가서 벌어지는 폐단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誠米法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만을 남겨두고 그로 말미암은 폐단은 刊行시에 빼버림으로써 자신의 공적을 손상시키려 하지 않았음이 역력하다고 할 수 있을 것같다.

이와 같은 吳知泳의 東學史 刊行시 草稿本에서의 기록 선택의 태도는 다음에 제시한 〈자료 8〉에서도 알 수 있다. 草稿本 [A]에서는 '官吏의 羅網에서 뛰어난 頭領들'이란 項目名 아래에 그 말미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인물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지만 刊行本 [B]에서는 이와 유사한 項目名인 '東學軍首領脫網者' 밑에 天道敎界에서 要職에 있는 소수의 인물들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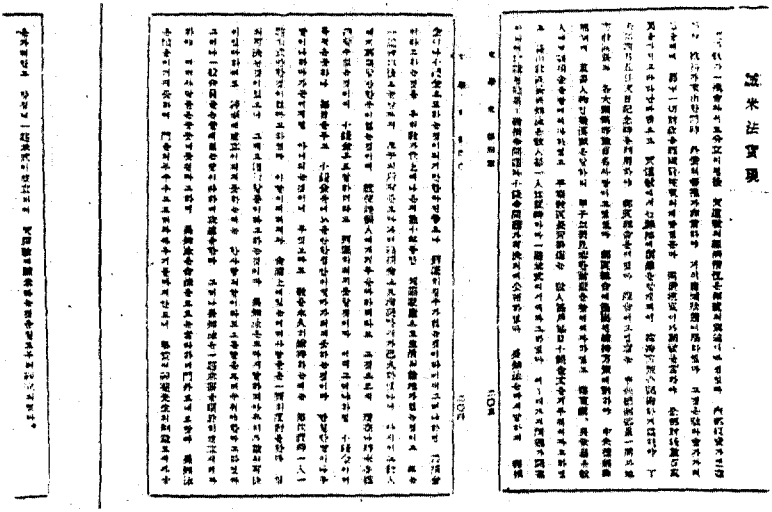
〈자료 6〉-[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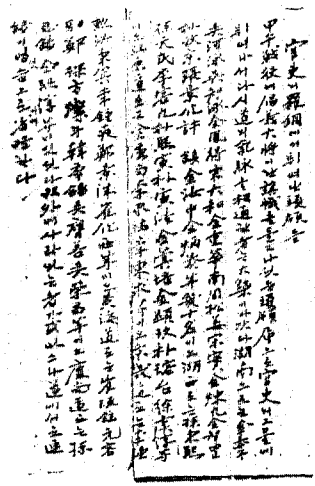
〈자료 6〉-[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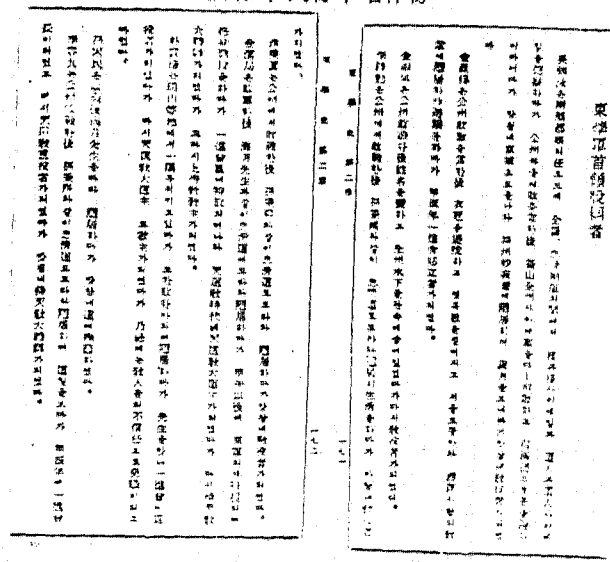
〈자료 7〉-[A]



〈자료 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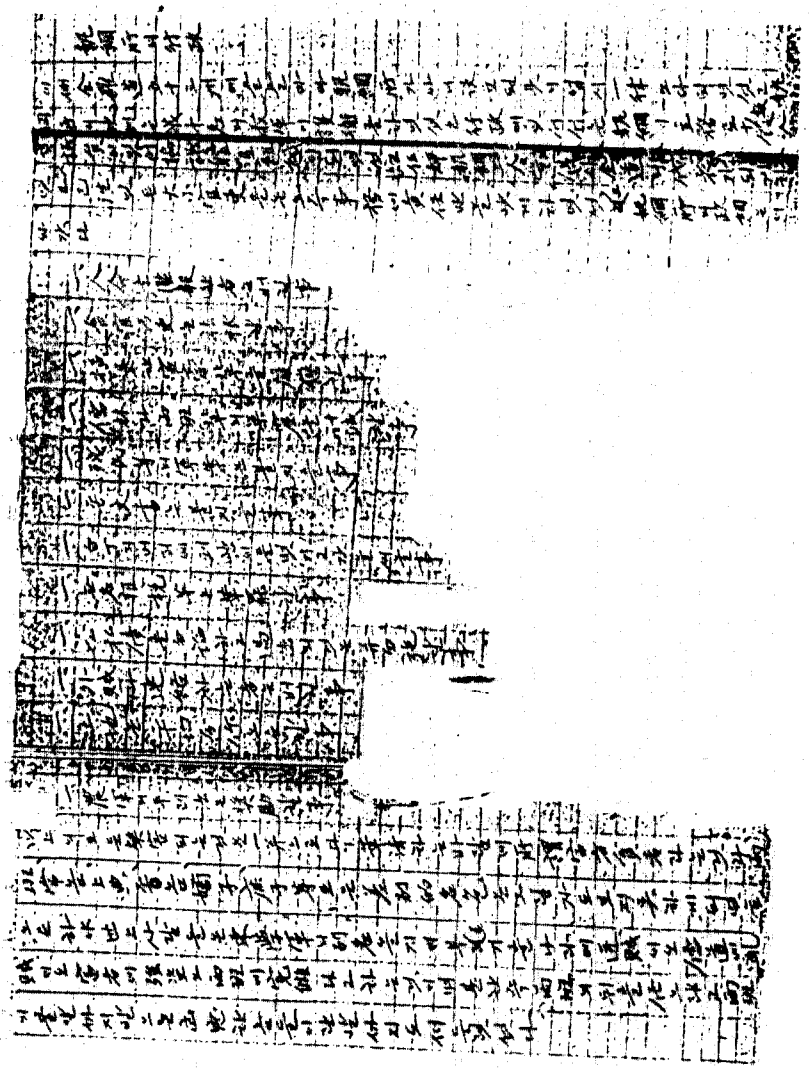
〈자료 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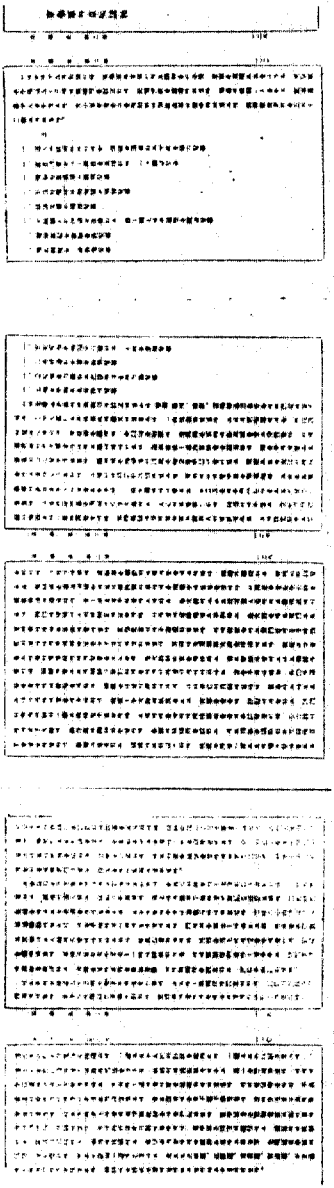
〈자료 8〉-[B]

해서만 刊行 시점의 활동상까지 요약해서 서술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경우를 맨 처음에 두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內容에 있어서도 앞에서 살핀 바 같이 서울에서 主事職을 역임했던 사실은 밝히고 있지 않고 東學 이후 피신다니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敎役者가 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런 서술 태도를 보이는 것은, 吳知泳 자신의 天道敎 내에서의 위치를 부각시키고 이에 저해되는 사실은 밝히지 않으려고 했던 때문이라 생각된다. 더우기 서울에서 잠깐동안 몸담았던 主事職이 그의 의형제였던 鄭璐根의 도움으로 李址鎔에 의해 얻어진 것이었다면 李址鎔이 이른바 乙巳五賊의 한 명이기에 그 사실을 밝힘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위신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우려하여 서술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싶다.

한편 셋째 경우의 例는 다음의 〈자료 9〉에서 볼 수 있듯이 항목명도 상이하며 草稿本의 內容이 刊行本의 內容에 들어가 있긴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다른 경우이다. 특히 이 경우의 대표적인 例로서 執綱所의 弊政改革要綱을 비교해 표로 작성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表 5〉와 같다. 이 〈表 5〉



〈자료9〉-[A]



〈자료 9〉-[B]

〈表 5〉「東學史」의 '草稿本'과 '刊行本'의 執綱所 弊政改革 要綱 비교

	草 稿 本	刊 行 本
제 1 조	人命을 濫殺한 者는 버힐 事	道人과 政府 사이에는 宿嫌을 蕩滌하고 庶政을 協力할 事
제 2 조	貪官汚吏는 祛根할 事	貪官汚吏는 그 罪目을 查得하여 一一嚴懲할 事
제 3 조	橫暴한 富豪輩를 嚴懲할 事	橫暴한 富豪輩는 嚴懲할 事
제 4 조	儒林과 兩班輩의 巢窟을 討滅할 事	不良한 儒林과 兩班輩는 懲習할 事
제 5 조	殘民等의 軍案은 불지를 事	奴婢文書는 燒祛할 事
제 6 조	종 文書는 불지를 事	七班賤人의 待遇는 改善하고 白丁頭上에 平壤笠은 脫去할 事
제 7 조	白丁의 머리에 패랭이를 벗기고 갓을 씌울 事	靑春寡婦는 改嫁를 許할 事
제 8 조	無名雜稅等은 革罷할 事	無名雜稅는 一并 革罷할 事
제 9 조	公私債를 勿論하고 過去의 것은 并勿施할 事	官吏採用은 地閥을 打破하고 人材를 登用할 事
제10조	外賊과 連絡하는 者는 버힐 事	·과 奸通하는 者는 嚴懲할 事
제11조	土地는 平均分作으로 할 事	公私債를 勿論하고 已往의 것은 并勿施할 事
제12조	農軍의 두레法은 奬勵할 事	土地는 平均으로 分作케 할 事

* 愼鏞廈, 前揭論文, 1987, p.101의 표 전재

의 12개조의 內容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체로 大同小異하지만 각기 서술에 있어서 대부분이 다르게 되어 있고 유사한 內容이라 하더라도 그 순서가 매우 다르게 등재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내용에 있어서도 草稿本에 수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刊行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조목은 '人命을 濫殺한 者는 버힐 事'(제 1 조), 殘民 등의 軍案은 불지를 事'(제 5 조), '農軍의 두레法은 奬勵할 事'(제12조) 등이다. 반면에 '道人과 政府 사이에는 宿嫌을 蕩滌하고 庶政을 協力할 事'(제 1 조), '靑春寡婦는 改嫁를 許할 事'(제 7 조), '官吏採用은 地閥을 打破하고 人材를 登用할 事'(제 9 조) 등은 草刊本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刊行本에는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59]

이와 같이 草稿本 및 刊行本 〈東學史〉의 기록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60] 아무런 史料 批判 없이 그대로 믿고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하는 견해[61]는, 그토록 중요한 土地改革政策 등이 어째해서 그 당시의 기록들에서는 전혀 찾아지지 않고 유독 〈東學史〉에만 수록되어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므로 선뜻 따르기가 어렵다. 그러면 弊政改革案 중 특히 土地의 平均 分作과 農軍의 두레법 장려 條目이 〈東學史〉에만 수록되어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에 대한 추측이 용납된다면, 그 이유는 그가 〈東學史〉 草稿本 저술 전부터 制度的 革新을 부르짖으며 天

59) 愼鏞廈, 前揭論文, p.102. 참조.

60) 종래에 吳知泳의 刊行本 〈東學史〉에 보이는 '弊政改革案 12條目'에 대해서 조작된 이야기로 보는 견해 (山邊健太郎, 甲申政變と東學の亂, 〈世界の歷史〉 11卷, 筑摩書房, 1961, pp.278 ~279)와 吳知泳의 기억이 틀렸거나 지어낸 말에 가깝다고 보는 견해 (朴宗根, 前揭論文, pp.44~45)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弊政改革案 12條目'을 東學農民戰爭 시기에 執綱所에서 실시한 개혁 통치의 내용으로 보아온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愼鏞廈, 甲午農民戰爭時期의 農民執綱所의 活動, 〈韓國文化〉 6, 1985.) 더우기 刊行本 〈東學史〉의 弊政改革案은 개설서는 물론이고 현행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도 전문이 번역 소개되어 있을 정도로 執綱所에서 실제 실시한 개혁 정치의 내용으로 보아온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러다가, 刊行本 이외에 草稿本이 있음이 발견되고 그 내용이 3條目씩이나 相違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그 차이의 이유를 執綱所 설치 지역의 郡別 차이이거나 時期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론하는 견해가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愼鏞廈, 前揭論文, 1987, pp.102~106.)

61) 草稿本 및 刊行本 〈東學史〉의 弊政改革案 내용 중에서 공통되게 수록되어 있지만, 여타의 弊政改革案에서는 전혀 찾아지지 않는 '土地는 平均으로 分作할 事'라는 條目과 草稿本에만 수록되어 있는 '농군의 두레법은 장려할 사'라는 條目을 연결지워서 執綱所의 土地改革案은 과감한 地主制度의 廢止를 前提로 하고 土地 所有는 國有 또는 마을의 공동체적 소유를 전제로 한 井田制의 시행이었고, 이러한 井田의 경영은 '두레법'에 의한 '두레 농장 제도'를 추구한 것이었다고 규정한 說도 제시되었다. (愼鏞廈, 前揭論文, 1987, pp.106~120) 하지만 이처럼 井田制의 시행이었다고 규정할 근거가 박약할 뿐만 아니라 茶山 丁若鏞이 〈經世遺表〉에서 주장한 바가 井田制이기 때문이라고 한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丁若鏞 스스로도 〈田論〉二에서 井田制는 시행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고, 오히려 閭田制를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였으므로 丁若鏞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井田制가 아니라 閭田制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명백한 典據가 없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하여도 지나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道敎聯合會를 조직하여 地方分權的이고도 平等한 敎會 운영을 주장하였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耕作地가 全無한 자칭 無産農民 出身의 天道敎聯合會 敎人들을 이끌고 滿州로 집단 이주하여 토지를 개간하고 代表者를 중심으로 集團 農場을 이루어 均等한 土地 分配 및 共同 耕作을 꾀하였던 점 등과 관련이 깊은 것이 아닐까 싶다. 즉 吳知泳의 草稿本 및 刊行本 〈東學史〉에만 유독 수록되어 있는 土地의 平均 分作과 農軍의 두레法 奬勵 條目은, 東學農民戰爭 시기의 執綱所의 弊政改革案 자체에 포함되어서 실제로 행해졌던 토지 개혁 정책이라기 보다는 滿州집단 이주를 통해서까지 그토록 革新的으로 실현해 보고자 했던 吳知泳 자신의 토지 개혁 방안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62]

이상과 같은 內容의 비교를 통해 보면, 吳知泳은 草稿本을 토대로 刊行本을 출판하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內容을 수정한 경우도 있는데 특히 자신의 활동상을 부각시켰고, 天道敎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실은 누락시키거나 다르게 서술한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의 〈東學史〉 서술 및 刊行의 태도는 바로 그의 〈東學史〉 刊行의 배경 및 그 目的과 表裏를 이룬다고 여겨지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62) 筆者의 이와 같은 견해는 吳知泳이 1940년에 東學史를 刊行할 때 그 間紙에서 書名을 '歷史小說 東學史'라고 하여 굳이 歷史小說로 출간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뒷받침 될 수 있을 것 같다. 당시가 日帝下에서 모든 출판물의 간행이 엄격히 통제되던 시점이기 때문에 통제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하지만 吳知泳이 〈東學史〉를 간행하려고 할 때 그를 늘 감시하던 刑事가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감동되어 간행에 오히려 앞장섰다는 그의 女 吳英華와 女壻 河相鎭의 談에 입각하면 그랬던 것 같지만은 않다. 그러므로 '歷史小說'로 〈東學史〉를 출간한 것은, 실제 사실에 입각해서 서술한 부분도 있지만 자신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자기 중심적으로 서술하고 실제로 행해졌던 것보다는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革新的인 改革 方案을 가미했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草稿本에는 없는 承政院日記의 抄錄이나 全琫準의 漢詩 등이 왜 刊行本에만 등재되어 있는지도 이런 점에서 살필 수 있다고 본다. 즉, 歷史小說로 東學史를 간행하면서 漢詩등을 넣어서 文學的 내용을 가미함과 동시에 전혀 근거가 없는 서술은 아니라는 점을 한편으로는 표방하기 위해, 承政院日記의 抄錄을 편재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다) 〈東學史〉 著述 및 刊行의 背景과 그 目的

먼저 〈東學史〉의 草稿本이 쓰여지기 시작하던 1924년에 吳知泳이 天道敎界내에서 처해있던 처지가 어떠하였는가를 밝혀 보면, 그 著述 및 刊行의 배경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살핀 바대로 1922년 이후에는 中央總部와 관계를 끊고 天道敎聯合會를 이끌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펴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天道敎聯合會 중심의 활동들이 온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일환으로서 草稿本 〈東學史〉를 著述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草稿本 〈東學史〉를 著述하기는 했지만 滿州 吉林으로의 집단 이주에 나서게 됨으로써 경제적 기반이 더욱 악화되어 刊行에는 이르지 못하고 草稿本을 지니고 다니면서 가필, 수정하는 데에 그쳐야 했던 것이다. 그후 滿州에서의 집단 이주가 본래의 취지대로 원활히 완성되지 못하자[63] 吳知泳은 1935년에 귀국하였던 것이다.

吳知泳은 이렇듯 〈東學史〉의 刊行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그의 反對派들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著述 활동들을 하고 있었다. 吳知泳과 상반되는 처지에 있던 侍天敎 敎主 金演局과 天道敎 舊派의 거두 李敦化의 著述이 그것이었다. 侍天敎主 金演局은 이미 1915년에 〈侍天敎宗繹史〉 등을 刊行하여 東學農民戰爭時 자신의 활약을 부각시키고, 崔時亨 사망이후 곧 자신이 그 宗統을 이은 것으로 서술하여 자신의 처지를 강화시켜 나갔으며, 그 이후에도 〈侍天敎歷史〉 등의 刊行을 계속하고 있었다.[64] 게다가 天道敎 舊派의 거두 李敦化는 吳知泳의 天道敎聯合會를 중심으로 한 革新 運動에 대해 강경히 반대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한편 1933년에 〈天道敎創建史〉를 刊行하여 吳知泳에 대한 공격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즉,

63) 〈東亞日報〉 1926년 8월 4일자 5면.
64) 朴晶東, 〈侍天敎宗繹史〉, 侍天敎總部, 1915. 및 崔琉鉉, 〈侍天敎歷史〉, 侍天敎總部, 1918. 등 참조.

동년(布德63년 : 1922) 4월에 吳知泳 金鳳國 등의 제1차 분규가 일어나니 그 때에 吳知泳측의 주장한 이유는 신중헌이 아즉도 불철저하고 敎主制가 원래 불가하다는 것이였는데 이에 교회는 신구양파라는 이름으로서 吳知泳편은 新派라하고 신중헌을 주장하는 중앙파를 舊派라 하여 신구양편의 막상 막하한 하에서 대립이 됨에 사태는 자못 심상치 아니하였엇다.[65]

라고 하여서 吳知泳이 金鳳國등과 분규를 일으켰다고 하면서 天道敎내의 新舊派의 대립과 분파의 책임이 吳知泳에게 있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李敦化는 〈天道敎創建史〉에서 대립과 분파를 해소시키려는 자신의 노력이

이 제도가 반포됨에 新派의 대부분은 이에 찬동하되 吳知泳, 金鳳國 등은 오히려 이를 불만히 여기는지라 그 이유는 교회의 중앙 집권제를 폐하고 각지를 독립케한 뒤에 그를 다시 연합하야 연합교회를 만들자 주장함에 중앙으로부터 그들의 주장을 일소에 붙이니 이에 吳知泳 일파는 연합교회란 이름으로 문호를 별립케하고 중앙에서는 崔麟 李敦化 양인을 평남북도와 함남북도에 파견하야 인심을 수습하고 교회의 장래를 설명한 결과 도문부흥의 서광이 비치게 되였었다…(中略)… 이에 따라 교인 전체가 아무 이의없이 분규전 상태로 합일되였고 오즉 吳知泳와 기인이 연합교회를 지지하야 유야무야의 형편에 돌아가고 말았다.[66]

라 하여 吳知泳등이 반대함으로써 유야무야한 형편에 돌아가고 말았다고 비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侍天敎의 교회사 편찬은 물론이고 天道敎내의 舊派들의 吳知泳에 대한 공격은 吳知泳과 그를 추종하는 天道敎聯合會 회원들의 대응을 자극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吳知泳은 〈東學史〉의 刊行을 서두르게 되어 1938년에 自序를 쓰고 1939년에는 당시 조선일보 기자로 있던[67] 黃義敦의 序文을 받아서 1940년에 永昌書館에서 〈東學史〉를 刊行하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기 때문에 吳知泳의 〈東學史〉의 刊行의 目的은 자신

65) 李敦化, 前揭〈天道敎創建史〉, p. 78.
66) 李敦化, 前揭〈天道敎創建史〉, 제4편 衆議制, pp. 2~3.
67) '黃義敦先生略歷',〈黃義敦先生古稀紀念史學論叢〉, 東國大出版部, 1960, p. 3. 한편, 黃義敦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朴永錫, 海圓 黃義敦의 民族主義史學, 〈汕耘史學〉 創刊號, 1985. 참조

의 주장이 지극히 온당한 것임을 밝히고 그를 통해 天道敎내의 反對派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의 自序 가운데

東學의 도가 이 세상에 나온지 기십년동안 그 도를 하느라고 칭하는 자 수십종의 각파를 통하여 그 수 자못 누백만인구에 달하였다. 말로는 비록 그 도를 하느라고 과장하는 자 많으나 그 도의 정체를 알고 나가는 자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는 바이다. 혹은 유의 부흥으로 알고 육신적 윤리만을 말하는 자도 있고 혹은 불의 재생으로 알고 영적 생명만을 말하는 자도 있고 혹은 선의 부흥으로 알고 기적 환상만을 말하는 혹은 어떤 정치설로 알고 망하는 자도 있어 천태만상의 기괴한 현상으로써 만언 사람을 유혹한 폐가 없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다 도라고 이를진대 東學의 도는 그 정체를 어느 곳에서 찾일는지 그것이 걱정이다.[68]

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東學史〉 刊行을 통해서 天道敎 敎理에 대해 잘모르고 유혹당한 사람들 즉 天道敎 舊派쪽의 주장에 끌린 信徒들에게 그들의 주장이 그른 것임을 알림으로써 자신이 주장하는 바의 온당성과 그 활동의 정당성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라 여겨진다.

이런 자신의 〈東學史〉刊行의 의도를 단적으로 잘나타내주는 대목은, '義庵先生死亡時喪章의 是非'라는 項目名하에

임술육월십칠일에 의암선생이 숙병으로 세상을 이별하였었다 …(中略)… 이 때 侍天敎主 金演局이 天道敎에 와서 하는 말이 新派나 舊派가 다 일문의 교인이라 숙시숙비는 물론이고 서로 합하는 것이 가타하였다. 新派측인 吳知泳은 말하되 侍天敎主는 天道敎의 쟁의를 아는가 모르는가. 어찌 그리한 호도몽롱한 말을 하는가 우리 도에 종전부터 두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으니, 한가지는 연원당파의 싸움이오, 한가지는 주의의 싸움이라. 당파의 싸움은 시비를 물론하고 합하는 것이 가하려니와, 주의의 싸움은 절대로 순합할 수가 없는 것이라 하며 고성대질하여 왈 우리는 어느 때까지라도 도에 위배되는 자를 다 섬멸하고 말겠다. 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로서 수백만 인중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와 수백만 대중의 피땀을 빼앗아다가 저 혼자 부자되고자 하는 자와 인내천 평등을 말하면서 저 혼자 왕노릇을 꾀하는 자는 다 없애버리고 말 것이다. 이말을 들은 侍天敎主 金演局은 아무 말이 없이 나가 버렸다.[69]

68) 前揭 〈東學史〉, pp. 4~5.
69) 前揭 〈東學史〉, pp. 230~231.

라고 함으로써 主義의 싸움에서만은 자신의 주장이 옳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하자 侍天敎主인 金演局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버리고 말았음을 자랑스럽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吳知泳이 〈東學史〉를 서술하고 刊行한 目的은 〈東學史〉 刊行을 통해 天道敎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자신이 펴고 있는 주장이 온당한 것이며 天道敎聯合會 중심의 활동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吳知泳의 〈東學史〉 刊行 目的은 〈東學史〉 刊行만으로는 충족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東學史〉 자체는 언필칭 東學의 연원과 그 역사전개상에서의 吳知泳의 활동의 정당성과 天道敎聯合會 결성의 필연성을 입증시켜 주는 데에는 충분했다고 할지라도 그 敎理的 측면은 충분히 밝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東學史〉의 최종 부분에서

> 東學의 派黨은 이 밖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所謂 淵源系統이 다르다고 하는 점에서 또는 思想程度가 다르다고 하는데 있어 千派萬節로 달리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장차 무슨 道理로써 귀일케 하겠느냐 하면 별다른 造化가 없는 것이오. 다만 한가지 道가 있으니 그것은 사람에게 모셔있는 그 한울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水雲先生 하신 말씀「나는 都是 믿지말고 네 몸에 있는 그 한울님을 깨닫고만 보면 되는 것」이라고 하셨다.[70]

라고 하여 다만 한가지 道만이 있으며 사람에게 모셔져 있는 한울님을 찾음으로써 東學의 파당은 해소되고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그 한울님을 찾을 방도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吳知泳이 侍天敎主 金演局에게 '主義'의 싸움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장담한 데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敎理的인 면에서 자신의 주장이 우월함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東學史〉에 짝하여 敎理書의 著述과 刊行을 꾀하게 되는데, 바로 그 敎理書가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新人乃天〉과 〈새사람과 새한울〉이라고 생각된다.

70) 前揭 〈東學史〉, p. 242.

(2) 〈新人乃天〉과 〈새사람과 새한울〉의 著述과 刊行

(가) 〈新人乃天〉과 〈새사람과 새한울〉의 著述 및 刊行 시기와 그 內容 비교

吳知泳이 〈새사람과 새한울〉을 저술한 것은 그 序文의 말미에

道創 六十八年 五月 日 記者 吳知泳序[71]

라고 하여서 道創 六十八年 즉 1927년에 序文을 썼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데에서, 그 어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新人乃天〉의 간행은 1936년에 天道敎聯合會의 本部 院長 柳公三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72] 이같이 〈新人乃天〉과 〈새사람과 새한울〉의 저술 및 간행이 〈東學史〉의 草稿本 저술(1925년) 및 간행(1940년) 시기에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天道敎 歷史書로서의 〈東學史〉에 짝하여 敎理書로서 〈新人乃天〉과 〈새사람과 새한울〉이 저술되고 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나 싶다.

그렇지만 1927년에 가서야 吳知泳의 敎理에 대한 정리가 비로소 이루어져 吳知泳이 〈新人乃天〉을 著述하게 된 것 같지는 않다. 그가 編輯員으로서 편집을 담당했던 〈天道敎月報〉에 敎理를 설명한 많은 글들을 싣고있었기 때문이다. 〈天道敎月報〉에 실은 敎理에 관한 그의 글들을 조사하여 보면 140여편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73] 〈天道敎月報〉에 게재했던 이 글을 토대로 하여 〈新人乃天〉과 〈새사람과 새한울〉을 著述했던 것이

71) 吳知泳, 〈새사람과 새한울〉, 1936, 天道敎聯合會, p. 4.

72) 吳知泳에게 직접 교리 지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만주에서도 같이 생활했던 崔玉順氏와 그 녀의 子 全景德氏가 소장하고 있던 〈새사람과 새한울〉의 겉 표지에는 〈新人乃天〉의 표지를 필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新人乃天〉이 1936년에 초판이 출판되었으며, 天道敎聯合會의 柳公三이 펴낸 것으로 되어 있다.

73) 1910년 8월에 발간된 〈天道敎月報〉 창간호에 축사를 게재한 이후 1922년 中央總部로부터 출교당하여 기고를 중지하는 1922년 4월호까지 국문 또는 한문으로 140여편이나 되는 敎理관계의 글이외에도 기념식사, 연설內容, 漢詩 등이 다수 실려 있다.

〈表 6〉「新人乃天」과「새사람과 새한울」목차 비교

順序	新人乃天目次	새사람과 새한울 목차(目次)	순서
序 文	新人乃天序：于一謹序	새사람과 새한울(新人乃天)：吳知泳書	서 문
第一章	人乃天의 正體	우리도에서는 사람이 곧 한울님이라고 한다	제일장
第二章	人類는 同類오 人生은 此生	인류는 동류요 인생은 차생	제이장
第三章	中心正氣	수심정기	제삼장
第四章	無爲化와 有爲化	무위화와 유위화	제사장
第五章	마음과 靈肉雙全	영육쌍전	제오장
第六章	心即是神	내 자신(神)이 곧 스승이다	제육장
第七章	事人如天	사인여천	제칠장
第八章	他信仰과 自信仰	×	
第九章	地上神仙	지상신선	제팔장
第十章	人類愛	인류애	제구장
	×	전쟁과 평화는 교화에 관계된다	제십장
第十一章	運命說	운명설	제십일장
第十二章	사람의 靈은 個體냐 非個體냐	영은 개체냐 비개체냐	제십이장
第十三章	善惡禍福說	×	
第十四章	廣濟蒼生	광제창생	제십삼장
第十五章	布德天下	포덕천하	제십사장
第十六章	開闢說	개벽설	제십오장
第十七章	各自爲心과 同歸一體	각자위심과 동귀일체	제십육장
第十八章	不然其然	불연기연	제십칠장
第十九章	無窮한 이울속에 無窮한 내아니냐	무궁한 이울속에 무궁한 내아니냐	제십팔장
第二十章	修煉方法	수 련	제십구장
第二十一章	宗旨와 儀制	종지와 의제	제이십장

	×	선천적 제종교와 우리	제이십일장
本文冒頭	新人乃天(源菴先生著述)	새사람 새한울	본문모두

아닐까 생각된다.[74] 한편 〈新人乃天〉과 〈새사람과 새한울〉의 內容을 살피기 위해 그 목차를 비교해서 제시해 보면 〈表 6〉과 같다. 이 〈表 6〉에서 보이는 바 같이 두 개와의 章이 차이가 있고 나머지 章의 제목들도 때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大同小異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목에서 가늠할 수 있듯이 〈새사람과 새한울〉은 국한문 혼용본인 〈新人乃天〉의 한글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한문혼용본인 〈新人乃天〉과 별도로 한글본 〈새사람과 새한울〉을 간행한 이유는, 漢字에 익숙치 못한 이들도 쉽게 그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나) 〈新人乃天〉과 〈새사람과 새한울〉의 著述 및 刊行 目的

〈新人乃天〉과 〈새사람과 새한울〉의 著述 및 刊行의 目的은 吳知泳이 쓴 序文에서

> 우리 도에서는 날근 인간을 새인간으로 날근천도를 새천도로 날근세상을 새세상으로 왕도세상을 인도세상으로 피생주의를 자생주의로 천선주의(天仙主義)를 지선주의(地仙主義)로 사후주의를 자생전주의로 불평화의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새세상을 말하는 것이다.[75]

라고 해서 자신이 표방하는 바의 〈新人乃天〉이 무엇인가를 간단명료하게 정의한 데에서 헤아릴 수 있는 것 같다. 말하자면 새천도를 믿는 새세상의 새인간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새로운 敎理를 설명하는 데에 〈新人乃天〉과 〈새사람과 새한울〉의 著述 및 刊行 目的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즉

> 우리 도에서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수운선생은 낡은 도를 고쳐 새

74) 〈天道敎月報〉에는 같은 호수내에도 '敎理部'는 漢文으로, '언문부'는 한글로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吳知泳은 때로는 같은 내용을 양쪽에 동시에 게재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보아 더욱 그러하다.

75) 前揭〈새사람과 새한울〉, p. 1.

도를 만들고져 천지개벽설을 주창하였고 해월선생은 낡은 법을 고쳐 새법을 만들고자 행아설 위설을 주창하였고 의암선생은 낡은 습관을 고쳐 새 습관을 만들고자 무천유천설을 주창하였고 우리들은 낡은제도를 고쳐 새제도를 만들고져 청수와 기도식을 폐지하고 연원제를 없애였다. 청수식과 기도식은 선천적 미신적이라 인내천주의에 맞지 않는 것이오 연원제에 있어서도 선천적 편당적이라 인내천사상에 합지 못한 것이다.[76]

라고 하였듯이 水雲 崔濟愚는 道를, 海月 崔時亨은 法을, 義菴 孫秉熙는 習慣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과 같이 종전의 制度를 새롭게 하여, 청수와 기도식을 폐지하고 연원제를 없애자고 하는 자신의 革新 주장이 온당함을 표방하는 데에 저술 및 刊行 目的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자신의 革新이 水雲, 海月, 義菴으로 이어져 내려와 이루어진 것임을 표방함으로써 天道敎내에서의 그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함은 물론이고 그 革新의 內容에 대해 異端視해 온 天道敎내의 反對派들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진다. 또한 그는 청수식과 기도식이 '선천적 미신적'이고 연원제가 '선천적 편당적'이라고 함으로써 모든 인내천주의 및 사상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의 이런 주장은 天道敎 反對派에서

大神師의 말슴 가운데 가장 힘잇는 것은 강화의교 그것이니 大神師는 一動一靜이 모든 것을 강화라 하는 創造的 사람의 교훈을 바다 행동한 것이라 즉 大神師는 現象的 사람과 創造的 사람을 갈나노코 現象的 사람으로 항상 創造的 사람의 교훈에 의하야 一動一靜을 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야 心告라함은 現象的사람이 創造的 사람의 지도를 바듬을 이름이라. 心告에는 두가지 다른 방식이 잇스니 하나는 보통 心告오 하나는 祈禱라하는 것이라.[77]

라고 하여 淵源과 祈禱를 공인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던 것과는 정면으로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吳知泳은 그의 反對派이자 舊派의 핵심인물인 李敎化가 〈人乃天—要義—〉를 1924년에 刊行해서 反對派 나름대로의 敎理를 정리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꾀하면서 자신이 이끄는 天道敎聯合會측의 敎理가 옳고 또한 정통성을 갖는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敎理書인

76) 前揭 〈새사람과 새한울〉, pp. 6~65.
77) 李敎化, 〈人乃天—要義—〉, 개벽사, 1924, p. 203.

〈新人乃天〉과 〈새사람과 새한울〉을 著述하고 刊行해 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따라서 그 題目도 李敦化의 〈人乃天—要義—〉에 반박하고 그 보다 새로운 것을 밝힌다는 의도에서 〈新人乃天〉으로 하는 한편 漢字를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도 그 敎理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본을 내면서 그 題目도 그대로 번역하여 〈새사람과 새한울〉이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고 자신이 표방하는 〈新人乃天〉에 입각한 天道가 〈새사람과 새한울〉의 종결 부분에서 天道敎내의 反對派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 우리 도보다 먼저 이세상에 나온 도가 많이 있었다. 왈유도와 왈불도와 왈선도와 왈기독교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그 도들은 선천적 사상으로써 그 유치한 인간들을 끌어나가니만치 모든 반편적 수단으로써 나가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 도들은 다 각각 자기의 사상으로써 혹은 몸하나만을 위하는 이도 있고 혹은 마음하나만을 위하는 이도 있고 혹은 기하나만을 위하는 이도 있고 혹은 영하나만을 위하는 이도 있었다. 그리하여 그도들은 스스로 사람의 자연주의를 떠나서 비인간적인 딴방면으로 다라나는 폐가 없지 아니하다. 여기서 사람과 사람은 서로 각각 나누워 인간은 스스로 고해가 되고 진세가 되고 지옥이 되고 난세가 되었다. 유도에서는 배신(拜神)주의오 사대(事大) 주의며 왕천하(王天下)의 도(道)로써 인민을 호령하고 또 화와 이(華와 夷) 중화와 사이(中華와 四夷)(오랑케)라[78]

라고 하여서 이 세상의 어떤 道와는 달리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사대가 아니며 왕천하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그 序文에 밝히고 있듯이 왕도주의가 아닌 인도주의, 피생주의가 아닌 차생주의요, 천선주의가 아닌 지선주의, 사후주의가 아닌 차생주의로서 평화의 세상을 만들게 해주는 道임을 내세우는 데까지 진전시켰던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면 이렇게 그가 先天的인 것을 극력 否定하며 現世에서 人道主義의 평화된 세상을 실현해 보려고 했던 까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점은, 아마도 吳知泳 자신의 사회적인 처지 즉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가 몰락 양반 출신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궁핍하였다는 사실과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요컨대 자신이 처해 있던 처지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78) 前揭 〈새사람과 새한울〉, pp. 65~66.

선천적인 것을 끝내 거부하며 현세에서 어떻게든 이상을 실현해보려는 革新的인 태도를 일생동안 견지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리하여 사망에 임박하여 최후로 남긴 遺書에서도 '불공평하고 불합이 한 것을 고쳐 …조흔 세상을 만들어 살기를 간절히 바라노라'고 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Ⅳ. 맺는 말

이상으로 吳知泳의 人物과 著作物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여기서 얻어진 것을 요약하여 結語에 代身할까 한다.

吳知泳은 1868년에 몰락 양반 출신으로 태어나 83세로 1950년 사망하기까지 東學農民戰爭期에는 益山지방의 농민군의 지도부 중 중견으로서 활동했고 그 후 主事職에 잠시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주로 天道敎 中央總部에서 간부직에 있으면서 활동하였다. 그렇지만 1922년 天道敎聯合會를 결성하여 天道敎의 革新派를 이끌면서부터는 中央總部와는 손을 끊고, 滿州 이주를 통해 자신의 革新的인 土地 均等 分作의 理想을 실현해보려고 하는 등 독자적으로 활동해 나갔다.

그는 天道敎의 歷史書인 〈東學史〉와 敎理書인 〈新人乃天〉 및 〈새사람과 새한울〉을 저술하고 간행하였다. 〈東學史〉의 저술과 간행은 天道敎 내에서 자신의 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東學農民戰爭에서의 자신의 활동을 부각시켜 자기 중심적으로 서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天道敎聯合會 결성을 통한 자신의 天道敎 革新 運動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東學史〉의 저술 및 간행에 짝하여 敎理的인 면에서 자신의 주장이 온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敎理書인 국한문 혼용의 〈新人乃天〉과 그것의 한글본인 〈사새람과 새한울〉을 저술하고 간행하였던 것이다.

현재까지 吳知泳에 관한 간단한 약력이나 그의 저작물들에 대한 조사조차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었던 차에 이상과 같은 부족한 내용들이나마 밝혀 이 분야의 연구에 보탬이라도 된다면 다행이겠다.